

리아호나





네브래스카 윈터 쿼터즈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의 이미지들은 경전에 근거를
둔 것들이다. 위쪽: 구세주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요한복음 15:5)라고 가르쳤다.
앞표지: 식각하여 만든 이 유리판은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넢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8)라고 구약전서에 나오는
아론 신권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준다.
“역사의 단편들, 빛의 조각”, 8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스테인드글라스, 톰 홀드먼.
사진 촬영: 플로이드와 톰 홀드먼. "역사의 단편들, 빛의 조각", 8쪽 참조.



친구들 표지
삽화: 달린 마쉬



17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8 역사의 단편들, 빛의 조각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유혹에 맞서기 위해 준비함
- 26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 31 신약전서 개관: 초기 사도들-그들의 생애와 서한
- 42 말일성도의 소리
그녀를 돌봐야 할 책임 아네트 캔드랜드 알제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셨다 요헨 에이 바이세르트
파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칼 벨슨
- 48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16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21 포스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 22 잠겨진 문 밖에서 미셸 톨리
- 34 영예로운 졸업 가브리엘 곤잘레스
- 36 기적의 땅에 비치는 불빛 린 에스 토팜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라는 구멍 뚫을 제임스 이 파우스트
- 4 신약전서 이야기: 교회를 인도하는 사도:
베드로가 한 남자를 고치다
- 9 성전 카드
- 10 벤의 선물 하워드 알 드릭스
- 13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개척자 그림 엮어 보기
- 1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를 따르라" 비키 에프 마쭈모리
- 16 특별한 증인: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36쪽 참조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 제임즈 터 타트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마가복음 4:1~2)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제7호

23987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앤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제이 켄트 줄리, 더블류 톨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리처드 엘 톨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콜라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켄 포터 곤트, 샤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빗, 앨린 민슨, 셸리 제이
오데카트,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앨 밀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엘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캄벌리 웹,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벌 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드
크리스티슨, 새리 쿡, 케리 린 시 해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램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빈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48호, 제 40권, 제 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40-3166

발행일: 2003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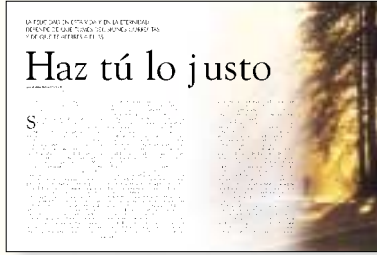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터미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ly 2003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의의 일하세”

2001년 3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판)에 실린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기사 “의의 일하세”에
감사드립니다. 제 딸이와 한 젊은이가 너무 어
린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화가 나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저는 두 사람을 도울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다
음날 저는 그 기사를 읽게 되었으며,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딸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기사에서
몇 단락을 읽어 주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젊은이와 이야
기를 하며 그 단락들을 읽어 주고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 또한 리아호나를 읽
었기에 이런 조언이 제 의견만은 아님을 이해했습
니다. 사도님도 그런 권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
다.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
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로사리오 콜메나레스,
페루 리마 초리로스 스테이크
초리로스 워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얼마 전에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관
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

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
도서라는 제목의 교재를 읽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그 교재 내용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며 지도자인 저도 아직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서 그
책을 얻었으며, 그 조카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었
다고 대답했습니다.

표준 경전과 모든 교회 출판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말일성도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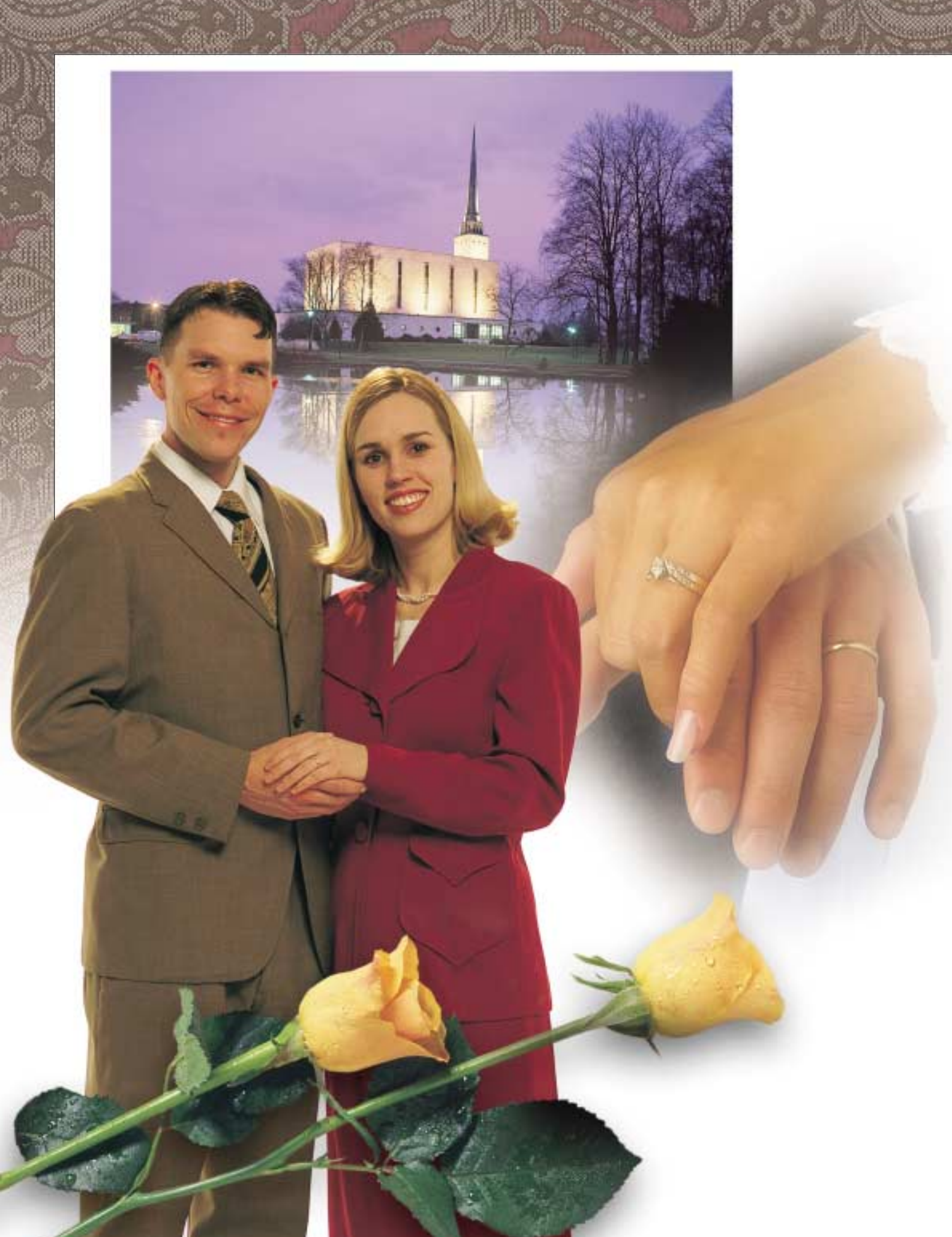
펠리페 우르비나,
니카라과 마나과 루벤 다리오 지방부
루벤 다리오 지부

힙클리 대관장의 권고가 청소년을 도움

저는 열여섯 살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빌려
준 리아호나(스페인어판) 한 권을 읽으며, 예언자의
권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으나 부모
님은 제가 침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래서 저는 선교 사업을 도우며 일 년 반 동안 교회
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
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예언자가 계시어서 좋
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와 위성 방송에서 청소년들
에게 순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려
고 권고하시는 그 분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
권고는 교회의 가르침은 참되며, 또 그것을 실천하
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테오 페레이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웨스트 스테이크
알토 알베르디 워드





원히 지속되는 결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시작하기 위해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오래 전 제가 새로 건축된 워싱턴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때 많은 취재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교회의 다른 건물과는 그 목적과 뜻이 다르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주님의 집으로 헌납된 이후에는 합당한 교회 회원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나 헌납 직전 1개월 내지 6주간은 방문자들을 환대하여 모든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 세상에 숨길 의도가 없다는 의미이며, 헌납이 끝난 후부터는 매우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서 깨끗한 생활을 하고, 교회의 표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목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목적을 설명했으며, 특히 사려 깊은 모든 남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원한 결혼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1958년 영국 런던 성전의 헌납 전 공개 전시회 때의 일을 회고했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

그 때에도 호기심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교통을 정리하도록 배치된 경찰은 영국인들이 이처럼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내부 관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선교사들 틈에 끼게 되었습니다. 젊은 한 쌍의 부부가 성전 앞 계단에서 내려 오고 있기에 그들에게 가서 도와 드릴 것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어느 한 방에서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문 근처의 오래된 나무 아래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낀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질문을 들어 보니 두 분께서는 영국 성공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것 같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결혼 및 가족 관계가 적절한 상황 하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버턴(프시틴 사진 제외), 모델 사진 촬영: 인콰; 사진 촬영: 모벨 사진 촬영: 영국 런던 성전; 오트룩; 사진 촬영: 제트 에이 클라크, 힝클리 대관장의 사진

지냈어요.”

“성공회의 감독이 결혼을 선포했을 때 이별도 아울러 선포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녀는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삶이 영원하다고 믿으시지요?”

“물론이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영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하지 않고서 영원한 행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없겠지요.”하고 예상했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공회 감독님은 결혼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분은 다른 말들과 함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그 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축복을 주셨겠지만 그것은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만일 두 분께서 그 감독님에게 물어 보셨다면, 그 분은 죽음 이후 계속되는 결혼과 가족 관계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결혼 및 가족 관계가 적절한 상황 하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세주와 그의 제자들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했으며, 이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3~19 참조)

“권능을 부여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이생을 너머 영원까지 미치는 권세인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권능이 고대에 이것을 지녔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일요일 성전 헌납이 있는 후부터는 바로 그 거룩한 신권의 열쇠가 결혼을 하러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남녀를 위해 행사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도 갈라 놓을 수 없고 시간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결합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만난 젊은 부부에게 드린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여러분과 모든 세상에 전하는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곳에서, 그리고 다가올 영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십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동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이 장미와 같습니까?”

수년 전에 저는 중병으로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병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섯 살 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네 명의 자녀와 남편을 남겨 둔 채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에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닳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닳친 이별이 애절한 만큼이나 언젠가는 기쁜 재회가 있을 것이라는 아름답고도 분명한 신앙이 그들의 눈물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족 관계가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신권의 권능 아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동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꿈꿉니다. 그러나 결혼은 권능으로 인봉되는 하나의 성약입니다. 그러한 권능이 국가에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동안만 지속되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능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엔다우먼트의 권세를 더하면, 그러한 동반 관계는 결혼 당사자들이 그 약속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이생을 너머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젊고 연약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들어있는 곡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이란 장미와 같아

활짝 피어 자라다가는
여름이 가면서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춤곡의 가사에 불과하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영원한 미래까지 그 사람이 지속되길 바라는 남녀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던져 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밝혀져 있는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랑과 결혼은 여름이 지나가면서 시들어 버리는 장미와 같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확실히 영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값진 이 은사는 그 값을 치른 후에 찾아오는데, 그 값은 자기 수양, 미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로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참된 동기 아래에서는 가능합니다.

“간증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1801~1877)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의 지역에 사는 젊은이치고 합당하게 결혼하기 위해 이 곳에서 영국까지라도 기꺼이 여행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축복을 원하는 젊은 여성 중에서 성전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우리의 지역 사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¹

많은 사람들이 성전 결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국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멀리 하와이 라이에 성전까지 여행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줄였던 일본 성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하네스버그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1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영국 런던 성전에 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 필수품까지 절약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났으며,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고, 그들이 치른 대가 이상의 값진 가치가 있었다는 간증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해안에서 온 한 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 분은 세상적인 결혼으로 맺어졌다가, 나중에 아내와 자녀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대륙을 힘겹게 여행한 다음 타스만해를 건너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와이카토 계곡에 있는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 올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곤 남은

밝혀져 있는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랑과 결혼은 여름이 지나가면서 시들어 버리는 장미와 같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값을 치른 후에 찾아오는데, 그 값은 자기 수양, 미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매 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난 당신이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길 원해. 하지만 당신이나 아이들을 영원히 원하지는 않아.” 이 대화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가구와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성전에 갈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성전에 가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인 비용을 감당할 여유도 없겠지. 주님께서 내게 일할 힘을 주시면 다시 차와 가구와 접시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구나.’”

합당한 결혼과 합당한 생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며 내일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오늘날만을 위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과 이별이 닥치듯이 내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죽음이라는 확실성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얼마나 달콤하며, 또 그로인한 평안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갈망하고 소망하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권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낭만적인 동경에 불과합니다.

오래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1838~1918)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은 혼란의 집이 아닌 질서의 집입니다. 이 말은 …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집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서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를 원하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러한 형식을 거쳐 지나갈 수도 있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권능에 의하여 수행되고 성결케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²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꾸민 이야기이지만 그 원리만은 참됩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장미가 만발한 때 성스러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 두 남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니라는 남자가 매리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매리,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이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길 원해. 하지만 당신이나 아이들을 영원히 원하지는 않아. 얼마간 살다가 그 다음에는 헤어지는 거야.” 달빛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니, 너무 멋져요. 자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제 남편과 제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길 바라지만, 그저 당분간만이고 그 다음에는 이별이에요.”

이 대화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교리와 성약 132:19) 아래 영원한 결합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저버리고 그저 죽음이 올 때까지만 지속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 남녀가 주고 받은 대화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가족 관계를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심사 숙고할 때, 이 필멸의 나날들 동안 계속될, 보람된 부부 관계와 풍요롭고 유익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성약 안에서 더 큰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보다 차원높은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권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신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무관심하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참여자가 되고, 거룩한 신권의 성결케 하는 권세가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를 인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64쪽.
2. 복음 교리, 244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제까지 이웃이나 친구에게 영원한 결혼을 설명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힝클리 대관장이 영국에서 그 젊은 부부에게 설명한 부분을 함께 읽는다.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영원한 결혼에 관해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2. 가족에게 장미나 다른 꽃을 보여 준다. 사랑이 어떤 면에서 꽃과 같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사랑이 장미와 같습니까?’ 단락을 함께 읽는다. 주님의 계획은 사랑과 결혼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간증을 전한다.
3. 적절한 경우, 가족에게 청혼을 하거나 받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그런 다음 힝클리 대관장의 메시지에서 마지막 다섯 단락을 읽는다. 가족에게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던 영원한 결혼과 가족 사랑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격려한다.

역사의 단편들

빛 의 조각



1846~1847년 겨울 동안, 약 3,500명의 말일성도들이 미주리 강 서편의 인디언 구역에 위치한 정착촌인 윈터 퀴터즈의 통나무집이나 움막집에서 살았다. 다른 2,500명은 강 건너의 아이오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모든 사람들은 서쪽의 시온을 향해 길을 계속 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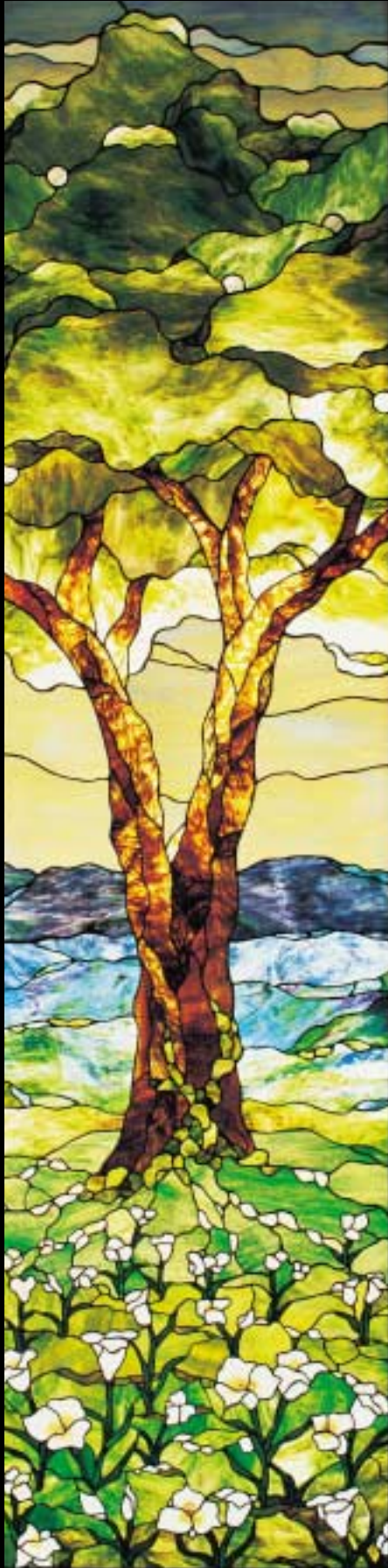
있는 봄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이 겨울은 “진흙탕”의 아이오와를 횡단하며 힘을 다 써 이미 기진맥진 해버린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음식과 보급품은 바닥이 났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거처가 턱없이 부족했다. 신선한 야채의 부족으로 괴혈병마저 돌았다. 더구나 500명의 남자들이 가족들을 여자들에게 맡긴 채 멀리 나가 물몬 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이 겨울에 관해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1807~1898)은 이렇게

위쪽: 네브래스카 윈터 퀴터즈 성전. 오른쪽: 해의 왕국실에 있는 생명나무





작업자들이 미리
디자인된 형태에 따라
각 유리 조각을 자르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톰 홀드먼: 사진 플로이드와 톰 홀드먼(별도 표기 제외); 문 기사에 있는 사진과 관련된 사진의 복제나 복사는 금지되어 있다.

오른쪽 위: 세고 나라와
 “생명수의 근원”(니파이일서
 11:25)의 일부. 오른쪽
 아래: 현관과 침례반 사이
 벽의 일부를 형성하는 창문.
 맨 오른쪽: 교회가 조직되던
 1830년 4월 6일 위치의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포함하여 하늘의 궁창을
 보여 주는 장면들.

적었다. “저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거나 이보다 더 빨리 기진맥진해졌던
 말일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¹

오늘날 말일성도들은 이 땅과 크나큰 희생을
 치른 개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개척자
 공동 묘지 인근에는 그런 희생을 눈으로 보여 주는
 네브래스카 윈터 쿼터즈 성전이 서 있다. 성스러운
 땅에 세워진 거룩한 집이다.

툼 홀드먼이 만든 스테인드글라스는 이 장소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데 시각 예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로나이 천사의
 황금상 아래에는 여섯 장의 살아 숨쉬는 듯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위쪽의 세 장면은 하늘을
 묘사한다.(11쪽 참조) 각 장면에는 선원이 쓰는



사진 ©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잘라낸 유리들을
디자인된 형태에
맞추어 조립하고 있다.

오른쪽: 개척자들이
 사용했던 주행 거리가 2층
 대기실 창문에 그려진
 12개의 개척자 장면들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

나침반이 있다. 각 나침반의 중앙에는 별의 왕국과 달의 왕국을 나타내는 별들과 달이 있다. 빛나는 햇살은 각 나침반의 바깥쪽 고리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해의 왕국을 나타낸다. 아래쪽의 세 장면은 강, 높고 낮은 언덕들, 그리고 야생화를 묘사하고 있다.

여섯 장 모두의 외곽은 직사각형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성된 디자인이다. 직사각형의 형태는 통나무집 모양의 퀼트 형태로 윈터 쿼터즈를 건설했던 개척자들을 상기시켜 준다. 다이아몬드 형태는 윈터 쿼터즈 땅의 주인이었던 오마하 인디언 부족의 미술을 연상시킨다.

성전 곳곳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참 포도나무”(요한복음 15:1 참조)와 “생수”(요한복음





가늘고 흠이 있는 납 조각이 유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른쪽 위: 올리브 가지
 창문의 일부. 오른쪽 아래:
 골든 로드, 세고 나리,
 그리고 물론 이동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꽃들을
 보여 주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일부. 맨 오른쪽: 성전의
 침례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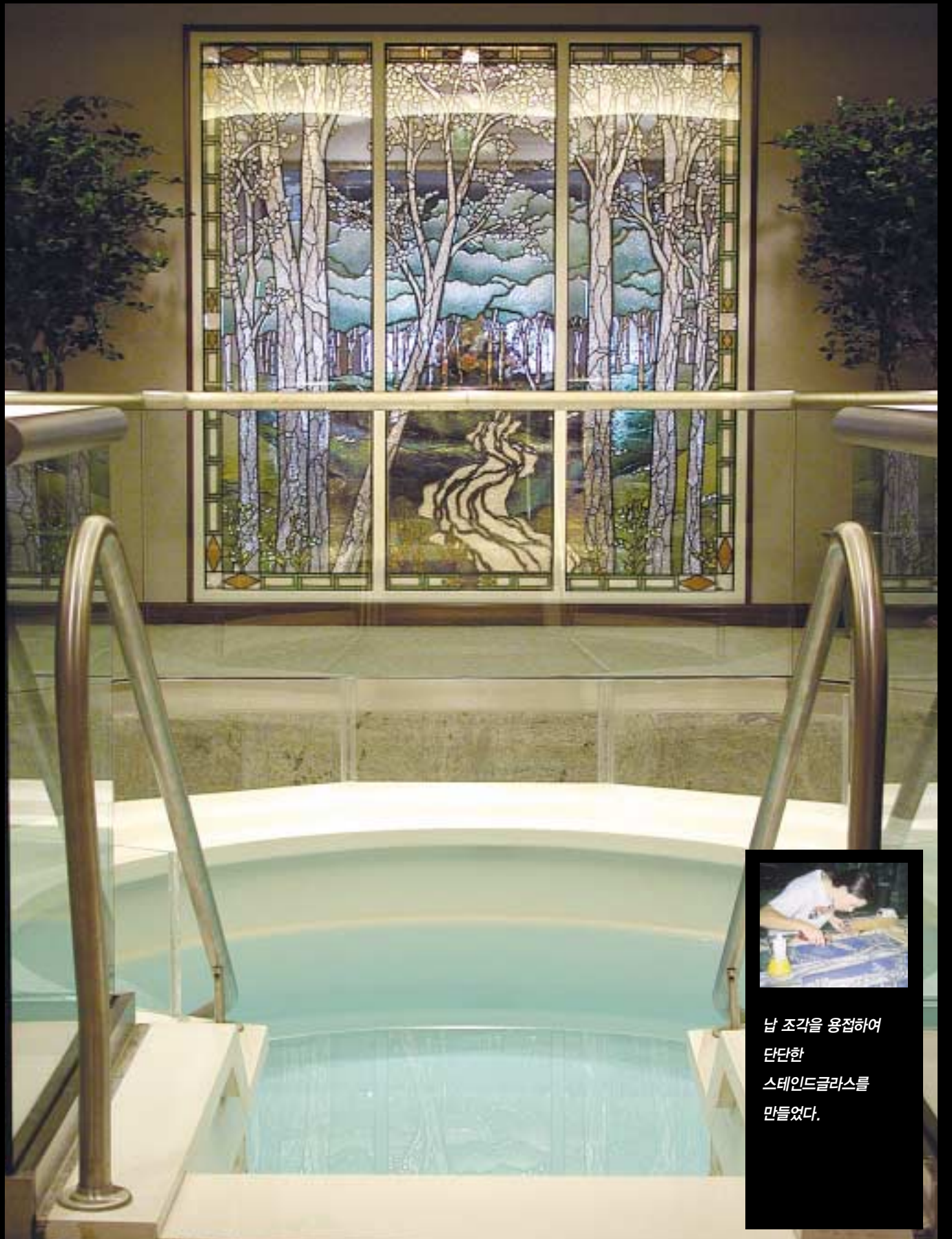
4:10)를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서,
 말일성도들이 영원한 성약을 맺는 곳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이요 빛”(요리와 성약
 11:28)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내온대.”(모로나이서 10:30)

이 역사적인 장소 위에 세워진, 상징적인
 스테인드글라스로 가득한 월터 쿼터즈 성전 안에서
 우리는 역사의 단편들과 빛의 조각에 둘러싸여
 우리 구세주를 예배한다. ■

주

1. Wilford Woodruff Journals, 1846년 11월
 17~21일,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
 Archives.





납 조각을 용접하여
단단한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었다.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전세계 곳곳에서의 팔복할 만한 교회 성장은 예언된 왕국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주목하게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겸손한 개척자 선조들의 신앙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846년에, 일만 여 명의 사람들이 미시시피 연안에 세워진 번창하던 나부 시를 떠났습니다. 예언의 권능을 지닌 지도자를 믿는 신앙으로, 초기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미국 변방의 황무지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도대체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들이 주님과 그분의 종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엢마서 32:21) 소망했습니다. 그 옛날 니파이가 그랬듯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니파이일서 4:6)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를 이끌던 브리감 영은 1844년 6월 27일에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의 목숨을 앗아간 폭도들의 난동이 더욱 격해질 것을 염려한 끝에 성도들이 1846년 봄에 나부를 떠날 것이라고 1845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나부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브리감 영이 그들에게 떠나야만 한다고 공포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45~1846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교회 회원들은 힘차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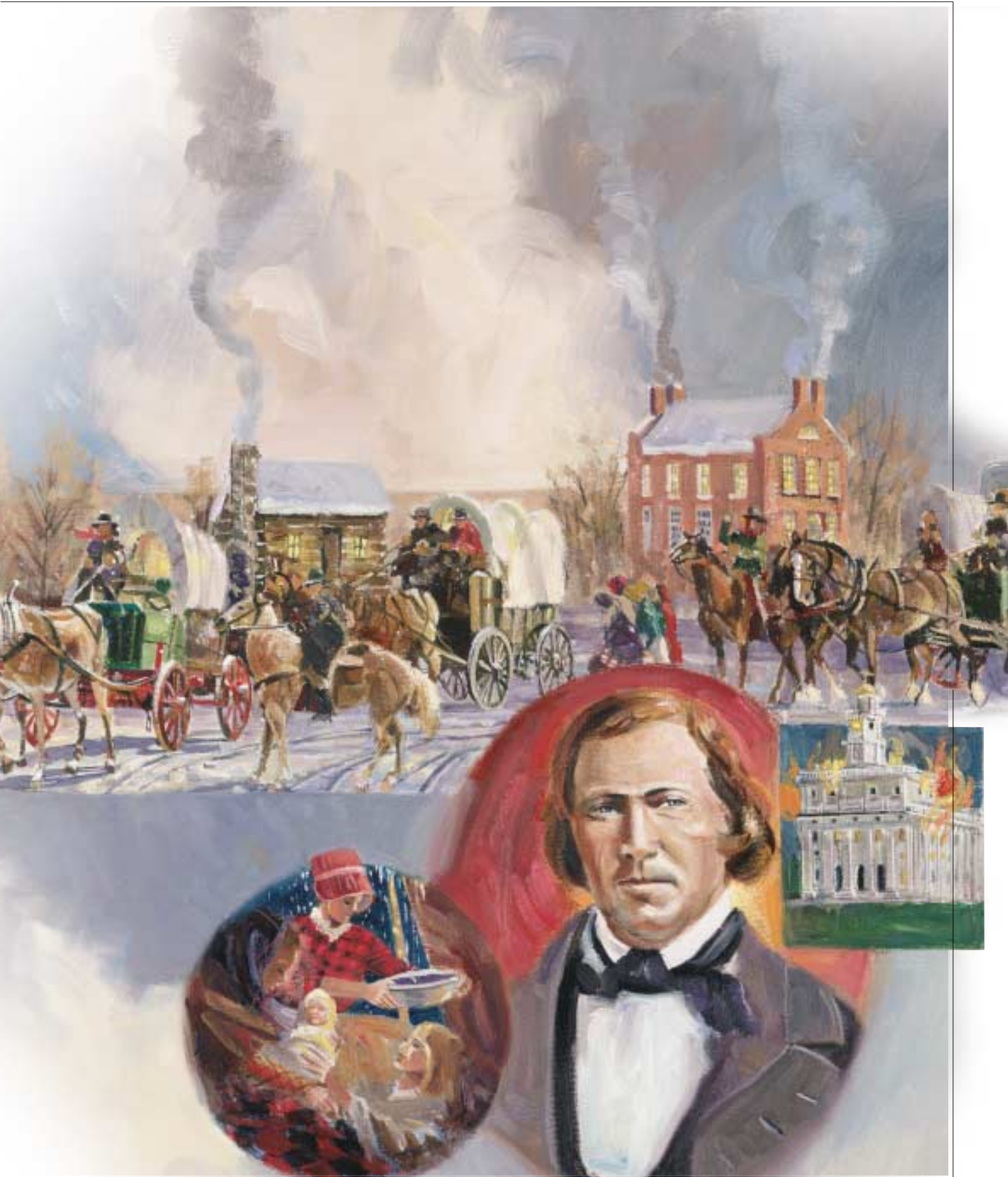
뉴웰 나이트가 그의 아내 리디아에게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다시 한번 이주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굳건한 신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논할 여지도 없군요.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 왕국뿐이에요.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합시다.”¹ 나이트 형제는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미주리로, 일리노이 주로 이미 여러 차례 이사해 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헌신적으로 복종한 리디아 나이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웅적인 초기 성도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떠남

매서운 겨울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폭도들이 다시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었으며 정부 개입의 무성함 소문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영 대관장은 성도들을 출발시키기 위한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846년 2월 4일 추운 겨울 날씨 속에 그는 첫번째 개척자 가족의 본대가 나부를 떠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실은



사진: 레인 윈보그, 개척자, 브리감 영, 그리고 나부 성전





회 복된 충만한
복음을 아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앞에
가시며, 오늘날 왕국을
세계적인 기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마차와 가축들을 몰고 나루터로 갔으며 그곳에서 아이오와로 건너가는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강에 떠다니던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이 마차들을 미시시피 강 너머로 운반하던 나룻배와 바지선들에 부딪쳐 소리를 냈습니다. 몇 주 후 기온이 더욱 떨어져 마차는 얼음 위로 보다 수월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초에 저는 아내와 함께 나부를 방문했습니다. 몹시 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살을 에는 듯한 바람 속에 서서, 그 넓은 미시시피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사랑하던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그 성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것처럼 많은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그 회생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도 없이 쫓겨가는 개척자들이 덜컹대는 마차를 몰며 강을 건너기 위해 팔리가를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강을 건넌 후, 그들은 서부의 로키 산맥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슈가 크릭에서 임시 야영을 했습니다. 이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조들의 신앙

1846년 2월 15일, 브리감 영 대관장이 아이오와의 야영지에서 떠나가던 개척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현대의 “이스라엘의 진영”을 조직하라는 계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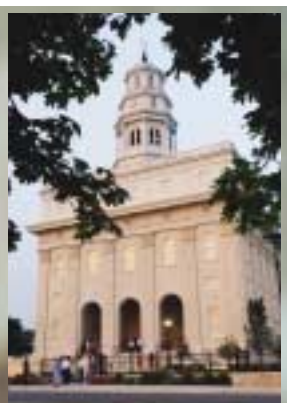
받았습니다. 3월 1일에 선두 대열이 아이오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는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추위, 눈, 비, 진흙, 질병, 배고픔, 죽음 등으로 야기된 여러 고난을 겪는 동안 이 용감무쌍한 개척자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중 일부의 신앙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때때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부 성전에서 행해진 성전 의식에서 받은 확신으로 버티어 나갔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견뎌 내었던 더욱 어려운 고난 중의 하나는 여행 중에 혹독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척자들의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산모들은 거의 모두 그 전까지 그들이 알았던 안락함과 전혀 무관한 여건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폭풍우나 혹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천막 속에서, 또다른 이들은 마차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계속해서 스노우 자매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에 막대기를 꽂아 그 둘레를 모포로 두르고 지붕 삼아 덮은 나무 껍질 사이로 비가 줄줄 흐르는 허술한 오두막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인정 많은 자매들이 온갖 그릇을 들고 서서 떨어지는 비를 막아 주었다. … 행여나 인생이라는 무대[의 입구]에 들어서는 [그 어린 아기]와 그 어머니가 빗물로 목욕이나 하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막아 선 것이었다.”²



개척자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난

지 150년이 넘는 지금
일리노이 나부 성전이
재건축되어
재헌납되었다.
개척자들의 신앙을
토대로 교회는 그 위에서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이 선한 자매들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기를 낳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살아 남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리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윈터 쿼터즈의 포장 마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친이
출산하는 동안 내내 마차의 포장을 통해 새어
드는 빗물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매들이 모친에게



어떻게 우산을 씌우고 있었는지를 큰 사랑을 담아
자주 회상했습니다.

우리 부친들의 신앙과 모친들의 비이기적인
희생, 그리고 참으로 감동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신 개척자 성도들을 결코 잊지 맙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고]"(교리와 성약 20:59)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자]"(모로나이서
10:32) 하는 우리의 일에서 용감한
종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분들을
기억합니다.

왼쪽: 사진 촬영: 엘든 시 앤더슨, 일리노이 나부 성전 및 성전 하늘; 오른쪽: 사진: 제프리 알 앨런드,
CHURCH NEWS; 가운데 사진: 상임: 레빈 쿨, CHURCH NEWS; 아래쪽 사진: 상임: 사진 촬영: 스티브 제이클슨; 사진: HAMMER
AND CHISEL COURTESY OF LDS CHURCH ARCHIVES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자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 쌓아갈
 수 있다. 우리의 충실한
 봉사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큰 축복, 즉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확장시켜 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해 준다.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이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앞에 가시며, 오늘날 왕국을 세계적인
 기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감사의 빛은 “이 위대한 대업을
 위해 봉사할 때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빛”입니다.³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재능, 능력, 재산,
 교육, 경험 등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겸손과 기도와 근면과 신앙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일에 부적당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약해서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멸성에 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욕구와 열정으로
 이끄는 유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세주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히브리서
 4:15)라고 적었습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 위대한
 사업에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름이 오더라도
 커다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⁴(사무엘상
 3:4 참조)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능력에 상관없이 충실한 봉사라면
 주님께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큰 축복, 즉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확장시켜 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해 준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보다는 흔히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

“이 교회가 초라하게 시작하여 지금의 힘을
 갖기까지 성장한 주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오로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드릴
 게 없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수많은 [회원들의]
 충실함과 헌신에 있습니다.”⁵

전세계 곳곳에서의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은
 예언된 왕국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주목하게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겸손한
 개척자 선조들의 신앙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토대를 만들었고 교회는 그 위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해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여 선조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언자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취하도록” 합시다.(야곱서 1:7) ■

199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주

1. R. Scott Lloyd, “Commemorating 1846 Exodus,” *Church News*, 1996년 2월 10일, 3쪽에서 인용.
2.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3:45에서 인용.
3. Joseph L. Wirthlin, *A Heritage of Faith*, comp. Richard Bitner Wirthlin(1964), 47쪽.
4. “신권을 행사함”,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48쪽.
5.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5~6쪽.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적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가복음 12:41~44 참조)

잠겨진 문 밖에서

미셸 톨리

나 만 빠진
채운
가족과
친구들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태이크 센터 밖에
있던 나는 비참하고
외로웠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뉴 욕 팔마이라 성전 헌납식이 우리 스테이크 센터로 중계 방송된다는 소식에 우리 스테이크 회원들은 환호했다. 회원들은 설레임에 가득 찬 듯이 보였다. 나 또한 그날을 고대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장권을 받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었다.

결국 헌납일에 가서야 입장권을 받기 위해 감독단의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분은 내게 입장권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방 속에 넣었다. 성찬식을 하는 동안 헌납에 관한 공지 사항들이 발표되었으나 입장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듣지 않았다.

나는 그날 집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헌납식이 시작되기 15분 전이 돼서야 지금쯤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흰 손수건을 손가방에 넣고 입장권이 들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내가 서둘러야 한다고 주의를 주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미리 떠났다. 원래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갈 계획이었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따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나는 놀랐다. 차로도 꽉 차 있었으나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늦었나

하고 걱정이 되었으나 시계를 보니 헌납식이 시작되려면 5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 교회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당황했으나 특정 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입장시킨다는 이야기를 어디서인가 들은 기억이 났다. 어떤 문인지 모르는 나는 모든 문을 다 열어 보기로 했다. 나는 교회 건물을 돌아가며 문들을 당겨 보고, 살짝 덜그럭거리게도 해보며, 실망 속에서 문들을 열려고 애썼다.

마지막 남은 문들에 다가서면서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그 문도 잠겨 있었다. 나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예배당의 문은 닫혀 있었다.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벌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만 홀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크게 낙심하여 차로 돌아가면서 나는 헌납식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가방을 뒤적거리려 입장권을 찾아보니 지금이 내가 참석할 시간이었다.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몹시 기다려 왔는데!

입장권을 뒤집어 보았을 때 거기에 적힌 글을 보고 놀랐다. 호기심을 갖고 읽었다. 헌납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내 가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부터 문이
잠겨진 채 영원히 밖에
있어야 한다는 더욱
치량한 생각이
들었다.



주의 사향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왜 그 글을 미리 읽지 않았을까? 입장권 뒷면에 있는 글을 전혀 읽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받자마자 손가방 안에 집어 넣었던 것이다.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낙심하여 시동을 걸지도 못하고 차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안에 있는데, 나는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을 들고 결혼식장 밖에 남겨진 것이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다섯 여인이 어찌면 그렇게 어리석은 수 있는지 의아했었다. 기름을 충분히 사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일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했다. 기름과 등잔이 우리의 간증과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리와 성약 45:57 참조) 나는 내 자신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나, 안에 들어가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주차장에 혼자 있으면서 나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름이 충분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등잔을 채워 준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나왔다. 가족과 친구들은 안에서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있는 것이 마음 아팠다. 이제부터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나는 굳게 다짐했다. 나는 잠겨진 문 밖에 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즐거운 결혼식장에 있고 싶다. ■

미셸 톨리는 캘리포니아 코로나 스테이크, 엘케리토 와드의 회원이다.

유혹에 맞서기 위해 준비함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영원한 관점이 유혹에 맞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앨마서 34:39: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고 악마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마지막 날 너희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않도록 하라. 보라 악마는 너희를 좋은 것으로 상 주지 아니하리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1907~1995): “유혹, 아픔, 고통 및 슬픔이 없다면 선함, 미덕, 평온을 인식하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원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 (모세서 6:33)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하고 유혹에 대항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단련 받는 백성”,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36쪽)

클린 케이 멘러브, 본부 초등회 회장: “교회 안에서조차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대체로 행복하지만 스트레스와 걱정거리와 어려움과 좌절로 인해 이따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은 시험과 시련의 기간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고통과 힘든 감정을 겪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계획을 참을성 있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매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후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4쪽)

우리는 유혹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성전을 사랑할 때, 성전에서 기쁨을 찾을 때, 성전 의식에 참석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감당하고 또 각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Be Your Best Self* [1979], 56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력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이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매우 비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능숙한 모방자”,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39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이 강한 의의 수호자가 될 때, 개인적인 표준을 세우고 그것들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을 때, 유혹이 와도, 여러분의 표준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은 강화되며,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안전한 계획 없이 유혹의 싸움터에 들어갈 때 옵니다.” (“의의 일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4쪽)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때때로 우리는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와 용서의 위대한 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을 떨어뜨릴 때, 즉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48쪽) ■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세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있는 순종하는 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 받고 회개의 조건 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 나는 인간의 [부활과] 구속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사망과 부활 사이의 시간 동안 하신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아” 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분의 불멸의 영은 육신을 떠났습니다. 생명 없는 육신은 무덤에 누어졌으며 돌이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얼마 후에 천사들이 무덤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6) 예수님의 영은 다시 그분의 몸으로 들어가 결코 다시는 나뉘지 않을 영과 육의 영광스러운 결합체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신조로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의 불멸의 영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일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신비에 싸여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께서 하신 일의 중요성은 온 세상에서 행해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더욱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례의 필요성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첫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지명도 때문에 구세주를 찾아와 그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여쭙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2~3,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보편적인 요구 조건에 응하셨습니다.(니파이서 31:5~7 참조)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공의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자비의 계획”(엘마서 42:15)입니다. 자비는 애정과 용서를 의미하는 반면, 공의는 형벌과 응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는 평등과 공평을 포함하여 보다 부드러운 어떤





세 상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이 신음하며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그 후 그분이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췌”습니다.

특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십 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침례를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각 사람에게 그것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계획이 자비롭거나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비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그리스도를 의미함]으로서 불의한 자여러분과 저를 의미함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베드로전서 3:19)

영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로써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왜 영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필멸의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그러한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또한 이생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 거합니다. 예언자 예녹은 세상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땅이 신음하며 바위가 쪼개지”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시에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영의 세계에 있던 순종하는 자들이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나아오는 반면 “남은 자들은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암흑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모세서 7:56~57) 이처럼 의로운 자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예언자 엘마는 순종하는 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맨 위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신자들에게 못 박히실 때, 신자들이 구세주께로 나아오는 장면, 이 그림은 두 단 부서를 포함
 성전 침례실 사진, 국제 저작권, 이 그림은 두 단 부서를 포함
 왜 영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필멸의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그러한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또한 이생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 거합니다. 예언자 예녹은 세상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땅이 신음하며 바위가 쪼개지”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시에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영의 세계에 있던 순종하는 자들이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나아오는 반면 “남은 자들은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암흑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모세서 7:56~57) 이처럼 의로운 자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예언자 엘마는 순종하는 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그림: 델 파슨, 그가 살아나셨습니까, 오른쪽: 사진 촬영: 티모라 에이치 라티에타, 유다 버날
 맨 위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신자들에게 못 박히실 때, 신자들이 구세주께로 나아오는 장면, 이 그림은 두 단 부서를 포함
 성전 침례실 사진, 국제 저작권, 이 그림은 두 단 부서를 포함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엘마서 40:12)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방문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으로 인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 (1838~1918)이 보신 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에 도착하시기 직전의 그곳을 보았습니다. 순종한 영들이 “한 곳에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2, 15)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 받고 회개의 조건 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나는 인간의 [부활과] 구속에 관한 교리를”(교리와 성약 138:19)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담과 이브, 노아 및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몰몬경의 예언자들도 그 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들을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부활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어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게”(교리와 성약 138:51) 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영의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는 악한 영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셨으며, ... 몸을 더럽힌 불의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그의 음성을 높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 포로된 자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더라.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38:20, 30~32)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보내는 사자들 가운데는 현재의 경륜의 시대에 살다가 죽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기”(교리와 성약 138:57)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사업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난제는 거룩한 성전에서만 행해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통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대신해 침례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베드로와 바울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죽은 자를 위해 집행되는 다른 성스러운 의식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세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들은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성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들은 이 세상과 영의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 리는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대신해
침례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사업은 구세주께서 의로운 죽은 자들을 방문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관한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일부 말일성도들도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일반적인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침례의 축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거나 영의 세계에 있거나 모든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집행하는 의식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기회를 제공할 뿐 개인의 선택의지를 무력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을 위해 의식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침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지상 생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때 다음과 같이 말한

앰울레크와 같습니다. “그러하였음에도 나는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런 연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지 않았었노라.”(앨마서 10:6) 앰울레크는 나중에 이 백성의 위대한 선교사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물문경에는 좀더 의로운 레이맨인들이 마음이 지극히 강박한 개다이엔톤 도적들을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으며, 그들은 “더욱 간악한 무리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서, 마침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이 도적의 무리를 온전히 멸하여 버렸”(힐라맨서 6:37)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나머지 일들은 죽은 자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

구세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있는 순종하는 자들을 방문하시기를 크게 고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한복음 5:25)

그분의 방문은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케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순종하다가 죽은 자들은 낙원이라 부르는 행복과 평안의 상태에서 “충만한 기쁨을”(교리와 성약 138:17; 또한 앨마서 40:12 참조) 얻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아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거부하고 죽은 자들은 어둠, 곧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앨마서 40:14; 교리와 성약 138:2 참조) 그러나, 그분의 방문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해 열쇠를 돌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문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교리와 성약 128:15)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연합하여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그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주

1. 침례라는 보편적인 필요 조건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과,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성인이다. 그들은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교리와 성약 93:38)하다. 예언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는 회개하고 침례하는 일이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임을 가르치며, ...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아니하니”(모로나이서 8:10~11).

이야기합시다

1. 구세주의 그림을 보여 주고,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는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답을 찾아본다. “일반적인 질문들”(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2. 예수님의 방문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가족에게 묻는다. 우리는 영육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를 읽고 오늘날 영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간증을 한다.

초기 사도들

그들의 생애와 서한



주후 34년

주후 36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 1
- 2
- 3
- 4
- 5
- 8
- 13



바울(사울)의 생애



- 6
- 7
- 9
- 10
- 12
- 14

서한(편지)

물몬경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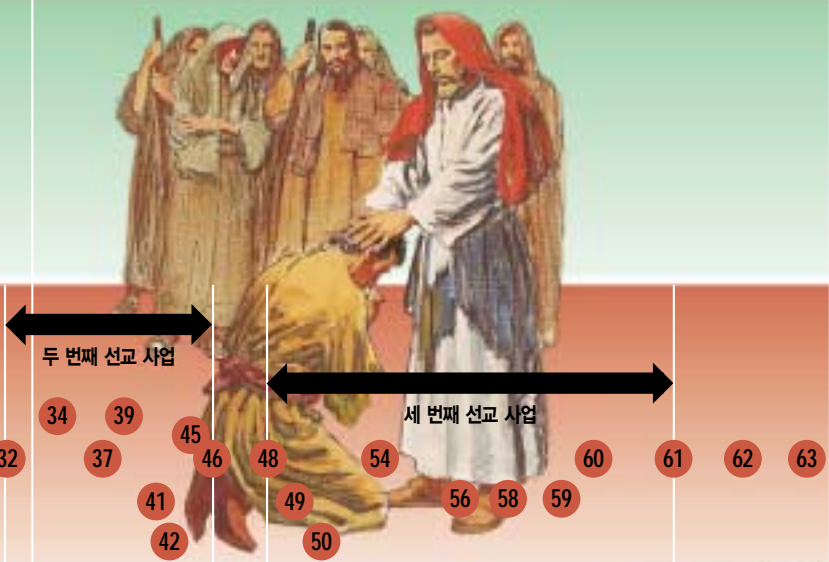
85

서한이 기록된 일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자는 대략적인 것이다.

1. 사도행전 1:1~11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큰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2. 사도행전 1:12~26 주님은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로 맛디아를 택하셨다.
3. 사도행전 2:1~47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4. 사도행전 3:1~26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성전에서 고치고 말일의 회복에 관해 간증했다.
5. 사도행전 4:1~31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옥에 갇히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간증했다.
6. 사도행전 4:32~37 교회 회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32절)
7. 사도행전 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거짓말을 하고 죽었다.
8. 사도행전 5:17~42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의해 옥에 갇혔으나 천사에 의해 풀려났다. 그들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9. 사도행전 6:1~7 일곱 명의 충실한 제자들이 사도들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고 성별되었다.
10. 사도행전 6:8~7:60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인 스테반이 공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을 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
11. 사도행전 7:57~8:3 사울이라는 젊은 랍비가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가담했다. 사울은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다.
12. 사도행전 8:4~13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침례를 주었다.
13. 사도행전 8:9~25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성신을 부여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갔다. 새 회원인 시몬이 신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물었으며, 베드로에게서 꾸지람을 들었다.
14. 사도행전 8:26~40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15. 사도행전 9:1~22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며 그는 눈이 멀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고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그림: 윌리엄 레인,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성전에서 고침; 그림: 그림,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바울; 노아케스,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됨; 그림: 에드워드 베벨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바울(사울)의 생애



다른 사람들



서한(편지)



물문경



- 16. 사도행전 9:23~26; 고린도후서 11:32~33; 갈라디아서 1:15~18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으며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사울이 정말로 개종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사울은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지냈다.
- 17. 사도행전 9:27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회개한 사울을 대신하여 말했다.
- 18. 사도행전 9:29~30; 갈라디아서 1:21~24 사울은 다소로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가르치며 약 4년을 보냈다.
- 19. 사도행전 9:31~43 베드로가 에니아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
- 20. 사도행전 10:1~11:18 베드로가 시현을 통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성신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 21. 사도행전 11:25~26 사울은 일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성역을 도왔다.
- 22. 사도행전 11:29~30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거둔 구제 물품을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성도들에게 전했다.
- 23. 사도행전 12:1~2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립바 일세 왕에게 참수 당했다.
- 24. 사도행전 12:3~23 베드로가 투옥되었다. 그는 주님의 천사가 의해 풀려났다. 천사가 헤롯을 쳤으며 그로 인해 헤롯이 죽었다.
- 25. 사도행전 12:25 바나바, 마가, 그리고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 26. 사도행전 13:1~12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나바 및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 이제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 27. 사도행전 13:13~14:6 바울은 비시디아에 있는 버가, 안디옥을 방문했으며,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을 침례주는 데 크게

- 성공을 거두었다.
- 28. 사도행전 14:6~19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쳤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믿었다. 바울은 나중에 둘에 맞은 후 죽도록 내버려졌다.
- 29. 사도행전 14:20~15:3 바울은 터베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도시에 들러 회인들을 강화시켰다.
- 30. 사도행전 15:4~29; 갈라디아서 2:1~3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지도자 평의회를 감리했으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훌륭한 회원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했다. 바울, 바나바 및 디도가 참석했다.
- 31. 사도행전 15:30~35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 대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 32. 사도행전 15:36~40 바울은 실라를 동반자로 대동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 33. 사도행전 16:1~3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교회에 들어왔으며, 바울과 실라의 선교 동반자가 되었다.
- 34. 사도행전 16:8~11 바울은 드로아로 여행했으며 그곳에서 동반자와 함께 마게도나로 가라는 시현을 받았다.
- 35. 사도행전 16:10~11 누가가 바울과 그의 동반자에게 합류했다.
- 36. 사도행전 16:12~15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이 다 주님께 개종했다.
- 37. 사도행전 16:16~40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지진으로 감옥이 흔들린 후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 38. 야고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야고보서 1:1) 편지를 썼다. 이것이 최초의 일반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 39. 사도행전 17:1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은

- 암비블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테살로니가를 여행했다.
- 40. 사도행전 17:2~9 테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친족인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폭도들이 야손을 체포했다.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은 피신했다.
- 41. 사도행전 17:15~34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베뢰아에 남겨 놓고 아텐으로 갔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몇몇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르쳤다.
- 42. 사도행전 18:1~3, 5, 11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일했다.
- 43. 사도행전 18:2~18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총독 앞에 섰다.
- 44. 테살로니기전서; 테살로니기후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다.
- 45. 사도행전 18:18~21 바울은 에베소로 여행했으며 회당에서 가르쳤다.
- 46. 사도행전 18:21~22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 47. 사도행전 18:24~28 에굽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로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 48. 사도행전 18:23; 19:1 바울이 갈라디아와 버투기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강화시켰다. 그는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러 있었다.
- 49. 사도행전 19:1~7 바울이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
- 50. 사도행전 19:11~20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교회가 그곳에서 성장했다.
- 51. 고린도전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왼쪽부터: 그림: 미렐리 배 켈펠, 베드로; 그림: 에드워드 베벨,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침례한 후에 성신을 부여하는 바울; 그림: 로버트 로버트, 안디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림: 리퍼델,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는 장 바울



- 52. 사도행전 19:23~41 에베소에서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 숭배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대항한 폭동이 일어났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폭도들에게 붙잡혔으나 후에 무사히 풀려났다.
- 53. 고린도후서 마케도냐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 54. 사도행전 20:1~2 바울은 그리스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
- 55. 갈라디아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 56. 사도행전 20:2~6 바울과 일곱 명의 동반자들은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가르쳤다.
- 57. 로마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 58. 사도행전 20:6~12 트로아에서,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생명을 살려 주었다.
- 59. 사도행전 20:13~38 바울은 에베소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려 성도들에게 배도에 관해 경고했다. 그는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 60. 사도행전 21:1~15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
- 61. 사도행전 21:16~23:10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는 성전으로 갔으며 그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다. 그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개종에 관해 말했다. 그는 로마 병사에게 체포되었으며 안전을 위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
- 62. 사도행전 23:11~26:32 바울은 로마 통치자들, 즉 베스도와 헤롯 아그립바 이세 앞에 섰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개종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했다. 그들은 재판장을 위해 그를 로마로 보낼 것을 결정했다.

- 63. 사도행전 27:1~28:16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위 아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자 멜리데로 헤엄쳐 갔다. 바울은 뱀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었다.
- 64. 사도행전 28:16~31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
- 65.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울은 로마에서 골로새, 빌립보 및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또한 교회의 회원이 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 66. 디모데전서 1:3; 디모데후서 4:13, 20; 디도서 1:5; 3:12 감옥에서 풀려 난 바울은 그리스로 여행했으며 여러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페인에서도 전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67.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은 그리스에서 디모데에게 그의 첫 번째 서한을 보냈다. 그는 또한 그레데에 있는 디모데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 68.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교회에 서한을 보냈다. 로마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 69. 마가복음 1:1; 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 마가와 누가는 각자 복음서를 썼으며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다.
- 70. 마태복음 1:1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썼다.
- 71. 디모데후서 4:6 바울이 체포되어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었다.
- 72.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것이 신약전서에 있는 바울의 마지막 서한이다.
- 73. 바울은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서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 74.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교회에 다시 서한을 보냈다.
- 75. 베드로후서 1:14 베드로 또한 네로의 통치

- 기간 중에 처형당한 것으로 보인다.
- 76.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거나 흩어졌다.
- 77. 유다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배도에 대해 경고하는 서한을 교회에 보냈다.
- 78. 요한계시록 1:9 요한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동안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
- 79. 요한계시록 1~22 요한은 주님의 시현을 보았으며 교회의 일곱 지부에 보낼 계시를 받았다. 그는 그 시현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냈다. 그는 또한 말일에 있을 사건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 80. 요한복음 21:25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썼다.
- 81.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은 세 통의 서한을 썼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랑에 관해 가르쳤다. 또한 회원들에게 진리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 82. 요한복음 21:20~24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 83. 데살로니가후서 2:3 대배도.

물문경

- 84. 니파이삼서 11:1~26:15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성역을 베푸셨다.
- 85. 니파이삼서 1:1~3 모든 사람이 개종했으며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3절)했다.
- 86. 니파이삼서 1:7~18 백성들은 도시들을 건설했다. 그 땅에는 다름이 없었으며,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다"(16절)
- 87. 니파이삼서 1:19 땅에는 평화가 계속되었다. 니파이는 기록을 그의 아들 아모스에게 전했다.

영예로운 졸업

이러한 축하
모임이 있는 날
밤에 단지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
그것은 내가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곤잘레스

내 친구 호르헤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와서 그의 잔에 있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나는 그의 권유에 놀랐다. 그는 내가 말일성도라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믿음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예전처럼 거절한다는 표시를 했다.

그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외쳤다. *"Pero es nuestra graduacion!"* (하지만 오늘은 졸업하는 날 밤이야)

그랬다. 졸업하는 날 밤이었다. 에콰도르에서 이것은 축하하기 위한 우리들의 밤이었다. 저녁 시간은 온 가족과 함께하는 만찬으로 시작되었다. 각 식탁 중앙에는

샴페인이 놓였으며 예의바른 종업원들이 훌륭한 식사를 위해 수고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졸업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왈츠를 추었다.

드디어 모든 부모들이 떠나고 졸업생과 친구들만 남았다. 호르헤가 내게 와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때였다.

호르헤는 단 한 번 정도는 아무런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졸업은 특별한 행사이며 모두가 술을 마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간단히 대꾸했다. “오늘이 졸업하는 날 밤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술을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줄곧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늘 거절하면서 나의 교회는 술과 담배가 해롭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친구들은 대개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정확히 어떤

느낌을 갖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놀랍게도 호르헤가 미소를 지으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그는 “너의 이러한 행동을 정말 존경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후에 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라”고 하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를 기억했다. (‘충실한 신앙’, *리아호나*, 1996년 9월호, 4쪽 참조) 호르헤와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 나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일성도들을 무엇인가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것이다. ■

가브리엘 곤잘레스는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마운트 엔사인 제3(스페인인)지부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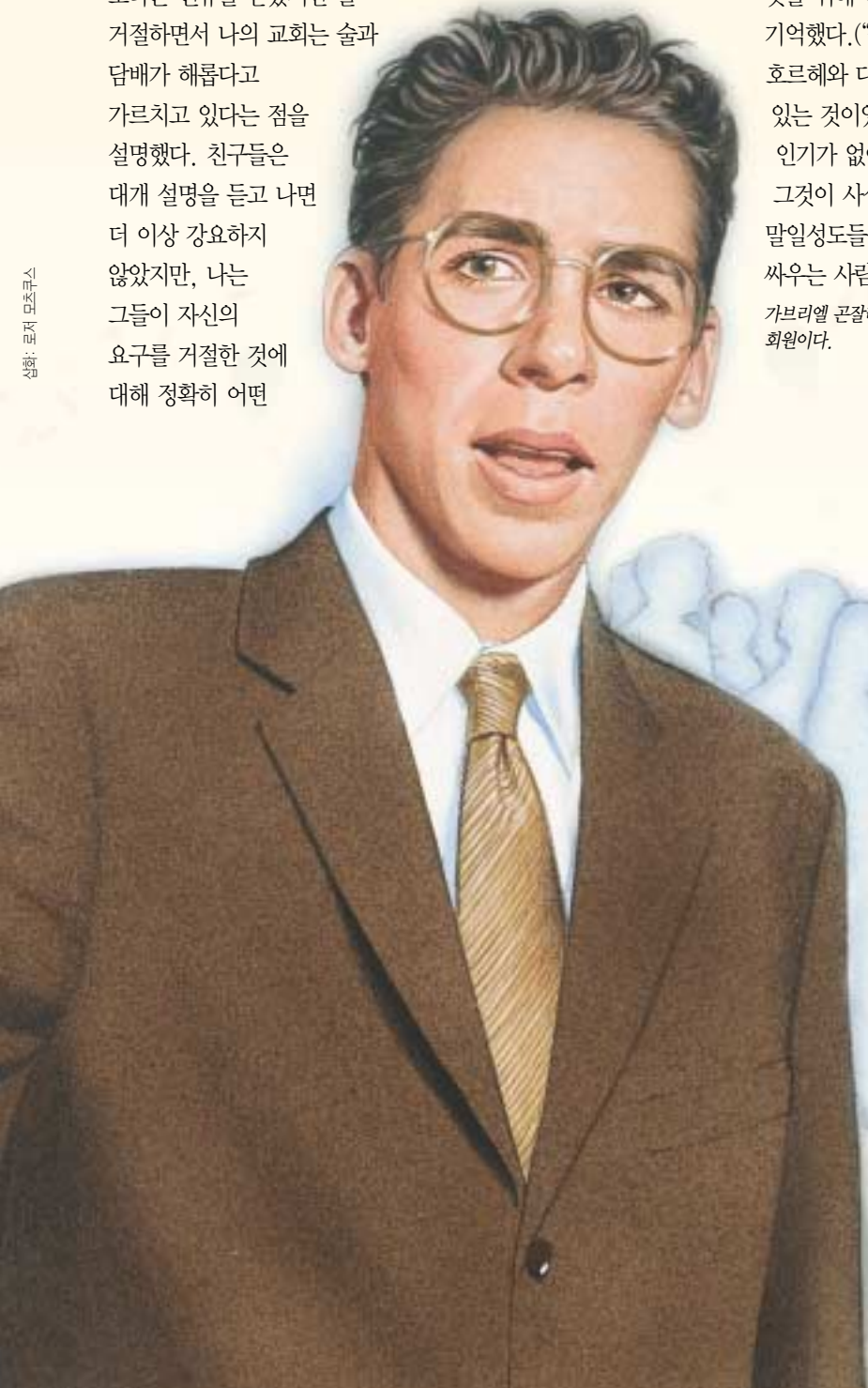


사진: 로저 모즈쿠스

기 적 의 땅 에 비 치 는



개 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청소년들
덕분에 नेपाल에서도
복음의 빛이 커 가고
있다.

린 에스 토팜

대 부분의 사람들에게 नेपाल은 신비의 땅이다. 중국 티벳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 지도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नेपाल은 일반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는 사가르마타가 있는 나라로서 친절, 아름다움, 그리고 약동하는 색채로 가득한 나라이다.

또한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이며 바위, 나무, 팔이 많이 달린 석상 등 모든 것을 섬기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에는 붉은

색 가루가 묻혀져 있으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질러서 닳아져 있다. 그러한 물체를 위에 묻혀 있는 가루를 문지르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로, 가루를 문지름으로써 नेपाल인들은 바위나 나무로 상징되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नेपाल인들은 *나마스테(namaste)*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나다.”라는 뜻이다.

계단식 논두렁 아래, 사람들로 북적대는 수도 카트만두 시 한 복판에는 교회의 작은 지부가 있다. 선교사들의 전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50명의 활동

보비



회원이 있는 이 지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교회가 성공을 거두는 대부분의 요인은 교회와 기독교를 위해 개척자가 된 네팔의 젊은이들 덕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임 선교사도 없는 곳에서 1년에 평균 12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단 개종을 하고 나면 네팔 회원들은 서로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들이 갖게 된 새로운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매와 그 친구들

만일 여러분이 13살 된 마니타 마하르잔에게 교회에 대해

묻는다면,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일곱 살이었을 때 그녀는 우샤와 사비타 타파 자매와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교회 회원이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 마니타는 교회에 있을 때면 늘 행복했다고 말한다. “저는 어린 소녀로서 지부 회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커 가면서 피아노 치는 것도 배우고, 지휘도 하고 저의 재능도 나누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복음도 공부했어요. 저를 이 행복한 세계에 데려다준 우사와 사비타에게 감사해요.” 마니타는 학급에서 1등을 했으며, 정기적으로 학교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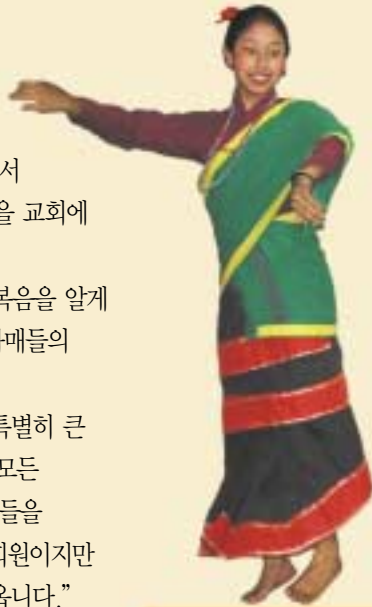
이러한 사랑으로 곧 다른 한 소녀도 복음을 알게 되었다. 14살 된 모니카 구롱도 타파 자매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기독교인이었지만 교회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으며 저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가족 중에서 제가 유일한 회원이지만 매주 안식일에는 어린 남동생들도 데려옵니다.” (네팔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모니카 또한 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수업 중에 교회와 물문경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니카에게 이러한 발표 기회가 허락된 것은 그녀가 모범생이기 때문이었다.

고유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모니카와 마니타는 전통 의상을 입고 전문 무용수처럼 우아하고 숙련되게 민속춤을 춘다.

참된 결심

베스웡갈 가르티 체트리(G. C.로 알려져 있음)가 침례를 받은 다음



날, 네팔에 있는 한 정치 단체에서는 번드(bund- 일종의 파업)를 선언했다. 이 파업의 결과로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회원들은 지부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G.C.가 확인을 받기 위해 교회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편도로 두 시간 반이나 걸리는 길을 걸어왔다. 거리는 혼잡한 차들 대신 사람들과 돌아다니는 동물들로 북적였다.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된 것은 교사로 일하고 있던 학교의 한 젊은 말일성도 교사가 교장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였다. 그는 재빨리 라메쉬 슈레스타에게

마니타 마하르잔(위)이 지부 재능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우사 타파, 프리에티 카드기, 그리고 마니타(위, 오른쪽)가 스와얌부나스 사원을 방문하다. 모니카 구롱(맨 오른쪽)이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동상과 더불어 성소들이 바크타푸르에 있는 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다.(오른쪽)



마니타 마하르잔



우사 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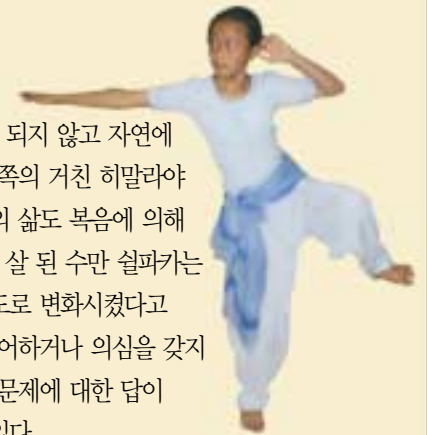


다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스물한 살이며 교회 회원이 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는 자신이 청남 회장이라고 했다. G.C.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결혼, 선택의지, 지혜의 말씀, 구원의 계획 등의 교리를 좋아했다. 따뜻한 성품과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이 G.C.가 가진 재능이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부 선교사라는 그의 두 번째 부름으로 이어졌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맛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카트만두 지부가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새로운 정상에 올라감

지질학적으로 그리 오래 되지 않고 자연에 의해 계속 변하고 있는, 북쪽의 거친 히말라야 산맥처럼, 이 젊은 사람들의 삶도 복음에 의해 계속 변하고 있다. 열 여섯 살 된 수만 설파카는 교회가 그의 삶을 놀랄 정도로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수줍어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경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리에티 카드기는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프리에티의 가족은 교회에 속한 몇 안 되는 가족 중 하나이며, 그녀의 아버지는 네팔에서 침례를 받은 최초의 회원으로서 현재는



사진: © 2002 CORBIS CORPORATION DIGITAL STOCK



모니카 구릉



베스웁갈 가르티 체트리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프리에티의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자녀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는” 길을 찾는 꿈을 꾸었다. 카드기 가족은 교회가 그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리에티의 오빠인 프라텍은 현재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네팔에서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10학년(역자 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프리에티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은 제가 안식일에도 시험 대비반에 나와서

공부하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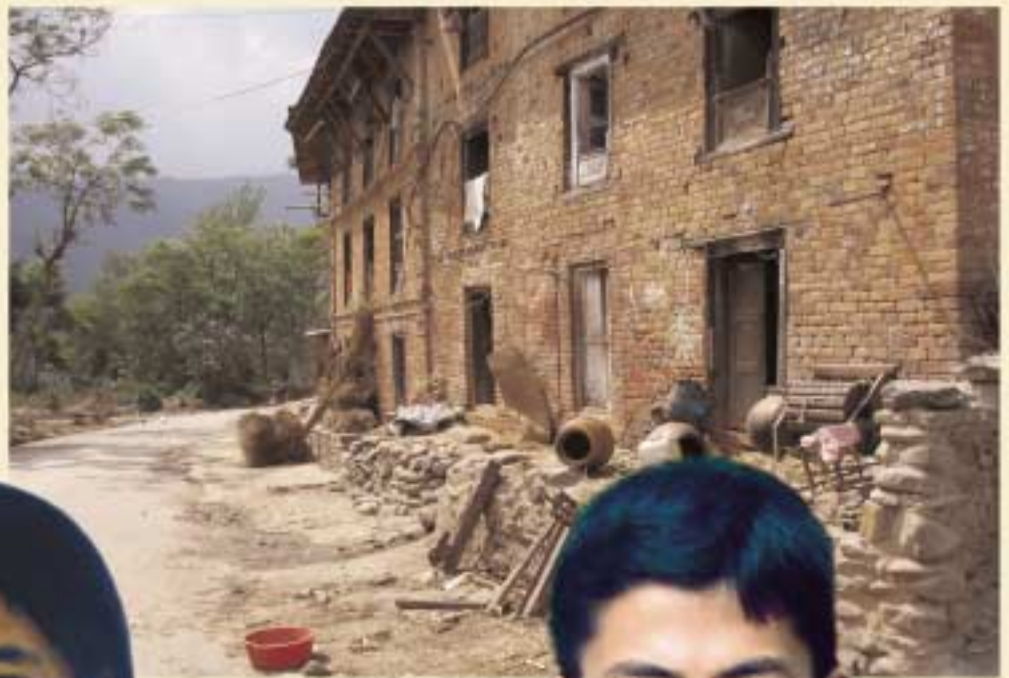
그러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나?”라고 선생님이 질문하셨다.

“네,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라고 프리에티는 대답했다. 후에 그녀는 “철문”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렸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매일 당면하는 과제

네팔 가족들이 아침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우유와 함께 차를 마시는 일로서 그것은 오랜 전통이다.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좁은



프리에티 카드기



디파크 슈레스타



골목마다 늘어서 있는 조그만 모든 가게에서는 작은 난로 위에다 차를 끓인다. 이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따르려는 노력은 많은 젊은 개종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 왔다.

디파크 슈레스타의 형은 네팔 최초의 선교사인데, 디파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한 형의 말에 흥미를 가졌다. 그러자 형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디파크는 곧바로 이 충고에 담긴 지혜를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디파크에게 있어 그 결정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다.

네팔어 물몬경에 대한 소망

열일곱 살 된 비키 사히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다. 이곳에 있는 다른 많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처럼 그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이다. 그는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비키 사히



수도원(36쪽에 있음) 근처에 있는 톨로가우(맨 왼쪽)를 관통해 흐르는 시내. 카트만두 근처에 있는 봉마티의 한 거리(왼쪽). 프리에티 카드기(위 왼쪽)가 민속춤을 추고 있다. 눈 덮인 마카후추하레(위). 비키의 침례식에 참석한 프라틱 카드기와 비키 사히(아래)



있다. 비키는 나누어야 할 새롭고도 아름다운 간증을 갖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또한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제게 사랑을 보여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물몬경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계명에 순종했을 때 제 습관이 개선되었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젊은이들이 애석해 하는 한 가지는 네팔어로 된 물몬경이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신앙에 의존해야 하며, 공과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어를 상당히 잘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젊은이들은 네팔어로 된 물몬경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 교회 및 전통 활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네팔 춤을 추며, 피아노를 연주한다. 볼링을 하러 가거나 암벽 등반과 골프 연습 그리고 킥복싱 연습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봉사 활동을 하며 교회 안팎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낸다. 그들은 열의를 갖고 생활한다.

네팔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맥과 계곡 한 가운데서 분명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것은 젊고 활력이 넘치며 신앙으로 가득 찬 소리이다. 이 청소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조국의 미래를 향해 복음 생활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 이 젊은 개종자들은 그 나라가 선교사들에게 환영의 문을 여는 날이 오기까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마스떼!”

린 에스 토팜은 남편 더블류 샌포드 토팜과 함께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다. 그들은 유타 파로완 스테이크 파로완 제4와드 회원이다.

그녀를 돌봐야 할 책임

아네트 캔드랜드 알제르

1월의 어느 이른 아침, 남편과 나는 다섯 번째 자녀 샬로페의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갔다. 나는 임신 기간 동안의 걱정을 그제서야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아기가 정상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렇더라도 똑같이 사랑해야지.”하고 남편이 위로하듯 말했다.

분만실에서 아기가 내 옆에 누어졌을 때, 나는 아기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온전해 보였다. 그러나 아기를 재빨리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하고 간호사가 대답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걱정하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간 호사가 샬로페를 재빨리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기 괜찮아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의사는 곧 우리에게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라고 말했다. 슬픔, 불신, 분노, 그리고 죄의식이 들끓어 올랐다.

“왜 우리에게? 왜 샬로페가?”하고 나는 외쳤다. 내 삶이 영원히 변해 버린 것 같았으며 나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샬로페의 출생은 힘든 생활의 시작이었다.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며, 우리 차 두 대가 고장났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다. 샬로페는 눈, 귀,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의료비 청구서가 태산같이



쌓였다.

특히 힘들던 어느 날 나는 샬로페를 우리 침실로 데리고 가서 절망에 찬 상태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전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았다.

톱 뉴스는 승객 전원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뉴스를 다른 각도에서 들었다. “누군가의 남편이 그 사고로 죽었겠지. 서로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 미망인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다음 뉴스는 마약을 팔다 체포된 청년의 이야기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차라리 내가 그의 어머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다.

나는 샬로페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어떤 말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예쁜 아기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것이 내게 온 응답이었다. 내게는 비행기 사고도, 마약도 없었다. 나는 그 어린 샬로페를 사랑해야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를 내게 맡기신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비통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샬로페는 우리에게 평화와 감사를 가르쳐 주었다. 낙담케 하는 시간들이

오더라도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아이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보내진 천국의 한 부분이다. ■

아네트 캔들랜드 알제르는 유태 엔터프라이즈 스테이크, 엔터프라이즈 제2와드의 회원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셨다

요헨 에이 바이세르트

19 75년, 아내 사빈과 나는 16개월 된 아들을 둔 젊은 부부였다. 우리는 당시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의 일부였던 셀레에 살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아마 주유소와 자동차 수리 공장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집을 결코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기차역 의자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마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것이다.

두 젊은 미국인은 자신들을 교회의 대표자라고 소개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음날 그들이 집으로 오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야기가 무척 흥미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정시에 도착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원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그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주제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약간 실망한 듯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한 내용이 실린 소책자를 두고 떠났다.

우리는 다른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책자를 주의 깊게 읽고 나서 이 미국인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가다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들었던 말인가?

9월의 어느 일요일 우리는 여러 달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집 근처에 불일이 있어 잠시 들르기로 했다. 그들은 새로 찾은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척 기대에 차 있었다. 정말 즉흥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우리는 그때 그 지부의 분위기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곳에서 들은 모든 것이 흥미있고 믿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다음 일요일에도 다시 가고 싶었다.

우리는 곧 전임 선교사와 회원 선교사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호르스트 클라페르트 형제가 구도자를 위한 반을 가르쳤다. 호르스트와 그의 아내 로트라우드는 우리와 공통점이 많았다. 우리는 친하게 되었으며 곧 교회 회원들로부터 모든 장소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덕분에 그 동안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과는 다른 훌륭한 많은 저녁 시간들을 즐기게 되었다.

전임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은 막스 피셔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였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토론을 할 때 피셔 장로가 내게, 바로 나, 요헨 바이세르트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오스나브루크의 한 커다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들 가운데 서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나는 켈러 여사라는 한 연로한 여인이 사는 곳의 홀 맞은편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바늘에 실을 좀 꿰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으며, 다음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아니면 그저 방문차 들르곤 했었다. 여러 달 동안 그녀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나뿐이었던 것 같았다.

내가 그 도시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직전에, 켈러 여사는 나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하여 바늘에 실을 꿰어 준 것과 다른 작은 일들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내게 그녀가 아끼는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찬송가 하나를 꺼내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를 3절까지 불렀다.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을 겸허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나는 켈러 여사에게 할 수 있는 한 자주 찾아

뵈겠다고 약속했다.

5주 후에 나는 다시 아파트 건물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낮은 음성은 켈러 여사가 2주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더불어 무척 바쁜 생활로 이 일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다. 최근에 개종한 친구들과 선교사 등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영을 느꼈으며 거의 울고 있었다. 몇 주 후인 1975년 10월 18일에 나는 피셔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아내는 회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약 1년 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켈러 여사는 낡은 찬송가 하나를 꺼내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를 3절까지 불렀다.

때 축복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형제님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현명한 목적을 위해 형제님을 찾으셨다고 형제님께 말씀하고 싶어하십니다.” 축복사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아내와 나는 세 명의 자녀를 더 두었으며 그들 모두 교회 안에서 키웠다.

사랑하는 연로한 이웃이었던 킬러 여사와 더불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그분께서 나와 가족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크나큰 감사를 드린다.

■ 요헨 에이 바이세르트는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 보름스 지부의 회원이다.

파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칼 넬슨

사업상의 모임으로 어린 시절의 고향인 매시추세츠 주 맨스필드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중학교의 웹 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현직 교사의 명단 마지막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중학교 2학년 때의 영어 교사 크리스틴 파일 선생님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는 화가 나서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다른 교사들은 나의 변한 태도와 떨어지는 성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파일 선생님은 달랐다. 그 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 분은 자주 내 숙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주셨다. “넌 더 잘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치못해 나는 숙제를 다시 하면서 생각했다. “좋아요, 내가 더 잘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더 잘하는 것을 보여 드리지요!” 그 밤에서 나는 푹푹하고 인정 받는다고 생각했다. 2학년을 마치고 쿼터스 중학교를 떠날 때, 나에게 대한 파일 선생님의 믿음 때문에 나는 학업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웹 페이지에서 그 분의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가능한 한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 분을 찾아 뵙기로 결심한 나는, 다음날 정오에



사업 모임에 양해를 구하고 쏘살같이 칼터스로 달려갔다.

파일 선생님의 교실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분이 복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이 외쳤다. “칼 벨슨, 25년만이로구나! 그런데 여긴 어떤 일이지?”

전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나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제 삶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선생님은 제게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런 큰 기대를 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 주신 것이 제가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주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동안 파일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분은 이런 말을

했다. “한 가지 해줄 이야기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사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늘 작가가 되고 싶었다. 어젯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런 감수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울적했다. 나는 바로 다음날 아무런 감수도 받지 못한다면, 교사의 일을 그만두고 글 쓰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네가 바로 이 시간에 와서 이 특별한 날 내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란다.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파일 선생님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겸손해진 가운데 그곳을 떠났다.

파일 선생님과 짧은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건 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건 상관없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 ■

칼 벨슨은 매사추세츠 링햄 스테이크 링햄 워드의 회원이다.

파 일 선생님이 외쳤다. “칼 벨슨, 25년만이로구나!”



알고 계십니까?



나부 취주 악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길에 눈물과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서부로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경우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1842년에는 윌리엄 피트가 이끄는 나부 취주 악대가 조직되어, 나부 군단이 행군 훈련을 받는 동안 연주를 했으며 다른 특별한 행사에서도 연주를 했다. 성도들이 나부를 떠날 때 취주 악대는 길을 따라가며 연주를 했다. 성도들이 아이오와를 통과할 때는 취주 악대가 그 지역 정착민들을 위해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취주 악대 단원들은 돈을 벌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물자를 마련했다. 서부로 여행하는 동안 단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나부 취주 악대는 후에 유타에서 재결합되어 한동안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우리 대부분은 찬송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개척자들을 위한 기념 찬송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노래는 1846년에 나부를 떠나는 첫 번째 개척자 대대의 한 사람에게 의해 작사되었다.

윌리엄 클레이튼은 아내가 격정되었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부에 남아 있어야 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가사를 썼을 때 그는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가족이 곧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는 오래된 곡조에 맞춰 새로운 가사를 쓴 것이었다. 그 새로운 가사는 여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고무적인 음악이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신속하게 퍼져 나가 불려졌다.

많은 개척자들이 여행을 끝내기 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충실함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그들이 남긴 충실함의 유산을 계승하고 “모든 것 잘되리”(찬송가, 16장)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1847년 개척자들이 서부로 여행하면서 ... 강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선한 물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노력을 새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취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57쪽.



자신의 지식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1. 성도들이 윈터 쿼터즈를 떠날 때(교리와 성약 136편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은 백 명, 오십 명, 열 명으로 일행을 조직했으며 각 일행에는 조장이 있었다. 영 대관장이 감리하던 본대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 ㄱ. 브리감의 개척자들
- ㄴ. 시온 진영
- ㄷ. 이스라엘의 진영

2. 네브래스카 주의 윈터 쿼터즈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자동차로 가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 ㄱ. 약 8시간
- ㄴ. 약 15시간
- ㄷ. 약 34시간

3. 영 대관장과 그의 부대는 윈터 쿼터즈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 ㄱ. 약 3개월
- ㄴ. 약 5개월
- ㄷ. 약 8개월



그림: 리아호나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16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우리 앞에 가신 분들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 빛의 일부나마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과 가족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 가정의 밤 시간 전에 구체적인 봉사 활동을 완성하는 목표를 세운다. 봉사를 하면서, 희생과 비이기적인 정신이 왕국 건설을 위해 희생한 개척자들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준다는 점을 기억한다.

• “영예로운 졸업”, 34쪽: 말일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에 대해 말한다.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기도라는 구명 밧줄”, 1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집 밖에 폭탄이 떨어졌던 한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폭탄 처리 부대는 그것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42, 48
- 가정 복음 교육.....7
- 가정의 밤.....48
- 가족 관계.....2, 친2, 친16
- 감사.....42
- 개종.....42
- 개척자.....8, 16, 36, 47, 친10, 친13
- 결혼.....2
- 경전 공부.....31, 친14
- 교회 역사.....47
- 기도.....친2
- 모범.....16, 34
- 미술.....8
- 방문 교육.....25
- 병 고침.....친7
- 봉사.....21, 42
- 부활.....26
- 사도들.....31, 친4
- 성전 및 성전 사업.....2, 8, 22, 26, 친9, 친10
- 순종.....25, 친14
- 신앙.....16, 친16
- 신앙전서.....31, 친4, 친7
- 신체 장애.....42
- 역경.....42
- 예수 그리스도.....26, 친4, 친7
- 전세계적인 교회.....36
- 준비.....22, 25
- 지도력.....48, 친4
- 지혜의 말씀.....34
- 초등학교.....친14
- 표준.....34
- 희생.....21, 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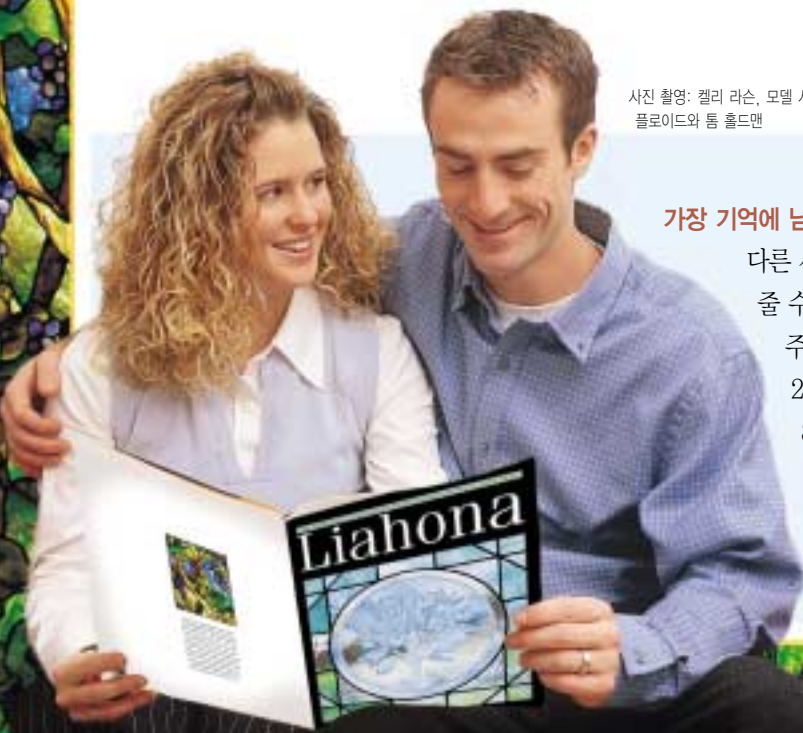


사진 촬영: 켈리 리슨, 모델 사진 촬영: 배경 사진 촬영: 플로이드와 톰 홀드먼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성탄절의 영을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탄절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Christmas Memorie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전자 우편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워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기도라는 구명 밧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이 삶의 커다란 특권이자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 기계적인 문제나 전기 고장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번 기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필요 사항들의 양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상에 보내셨을 때,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명 밧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가면서 크고 작은 염려에 대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뜰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밤으로 [우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앨마서 34:20~21 참조)라고 권고했던 앰올레크의 말을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앰올레크의 권고는 “이 전쟁의 시기에 조국을 위해 군복무하는 제이슨을 축복하사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라는 한 아내의 진심어린 기도, “제 사랑하는 딸 제인을 축복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소서.”라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자니를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아버지의 기도, “제가 오늘 버릇없이 굴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혹은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또는 “엄마가 빨리 낫게 도와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21)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가족 기도는 강력하며 지속되는 영향력, 즉 우리가 선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500파운드[225킬로그램]의 폭탄이 영국 리버풀에 살던 젊은 아버지인 패티 형제의 자그마한 집 밖에 떨어졌으나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에, 그는 혼자서 다섯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긴박한 이 시간에 가족 기도를 드리고자 자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기도를 마쳤을 때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 집에는 별일 없을 거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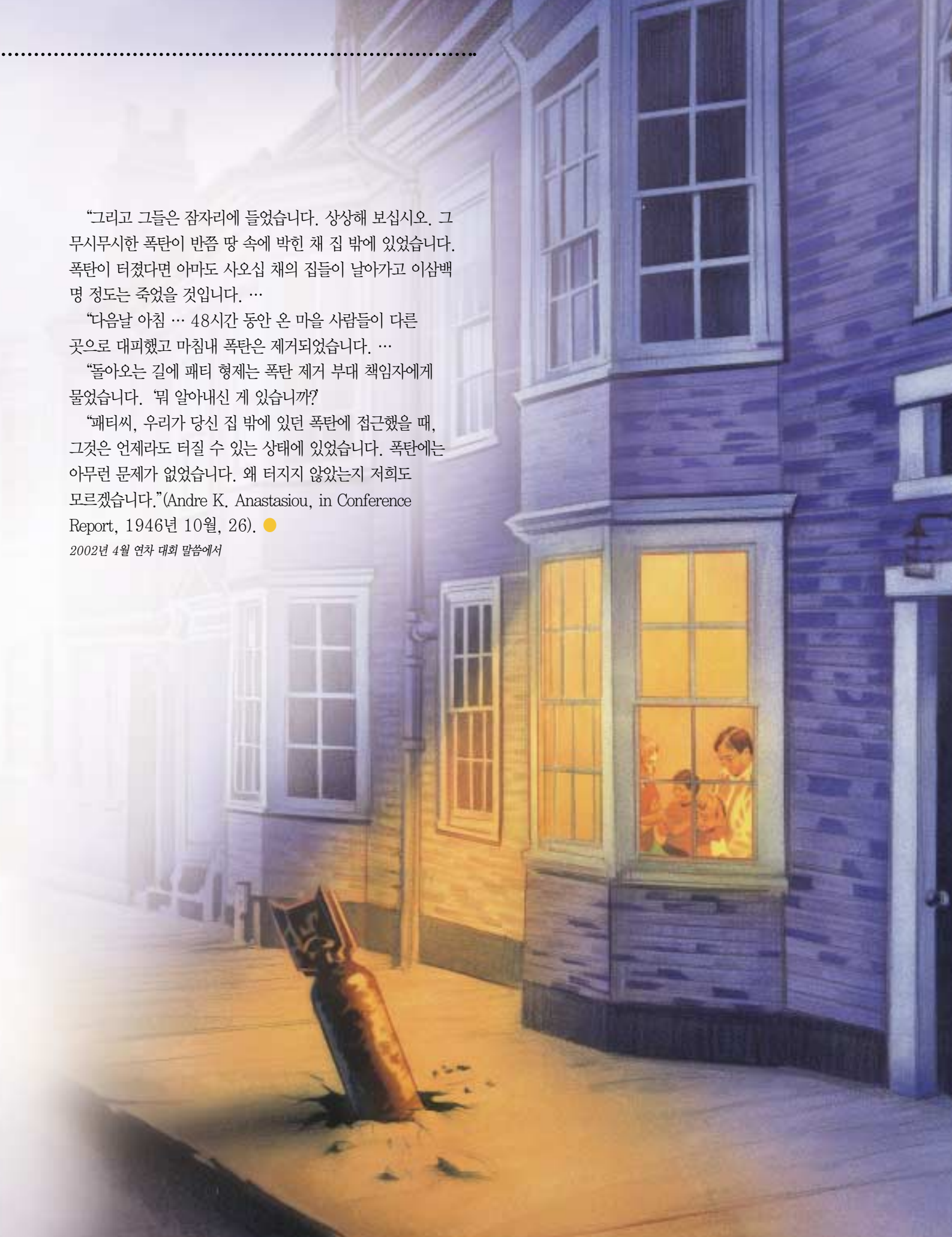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폭탄이 반쯤 땅 속에 박힌 채 집 밖에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면 아마도 사오십 채의 집들이 날아가고 이삼백 명 정도는 죽었을 것입니다. ...

“다음날 아침 ... 48시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대피했고 마침내 폭탄은 제거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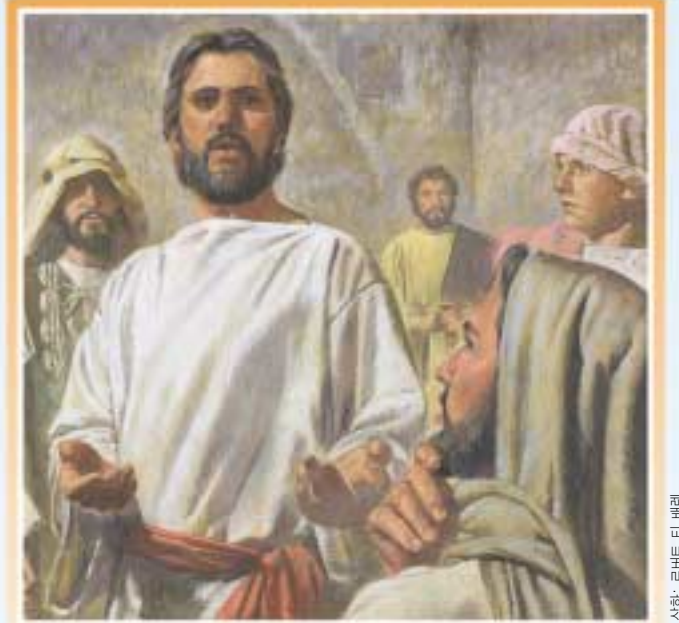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패티 형제는 폭탄 제거 부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뭘 알아내신 게 있습니까?’

“패티씨, 우리가 당신 집 밖에 있던 폭탄에 접근했을 때, 그것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폭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터지지 않았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Andre K. Anastasiou, in Conference Report, 1946년 10월, 26). ●

200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도



권영민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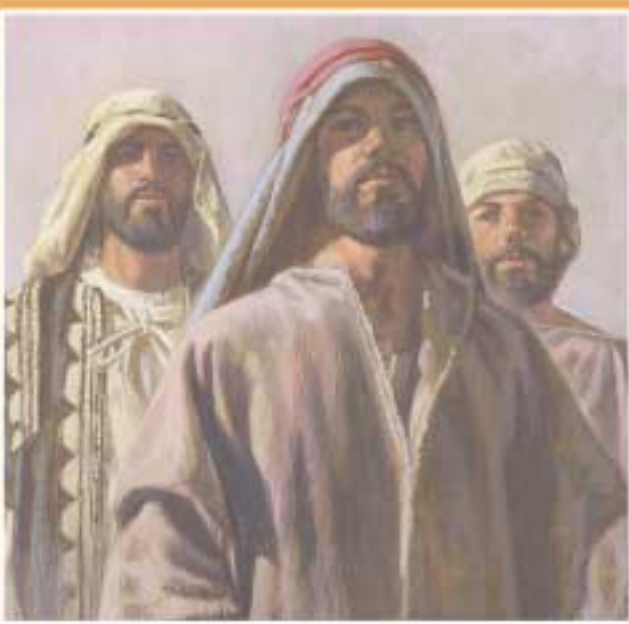
그분은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곧 사도들의 길을 떠나실 것이지만 성신이 그들을 도우려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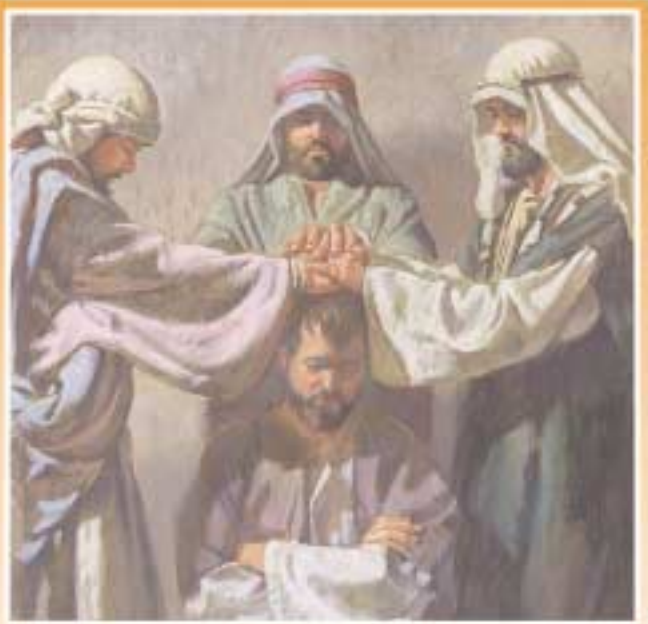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11



사도들은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관장이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18~19; 27:3~5; 교리와 성약 81:1~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222쪽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맞디아를 사도로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다시 열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5~17, 21~26; 교리와 성약 102:8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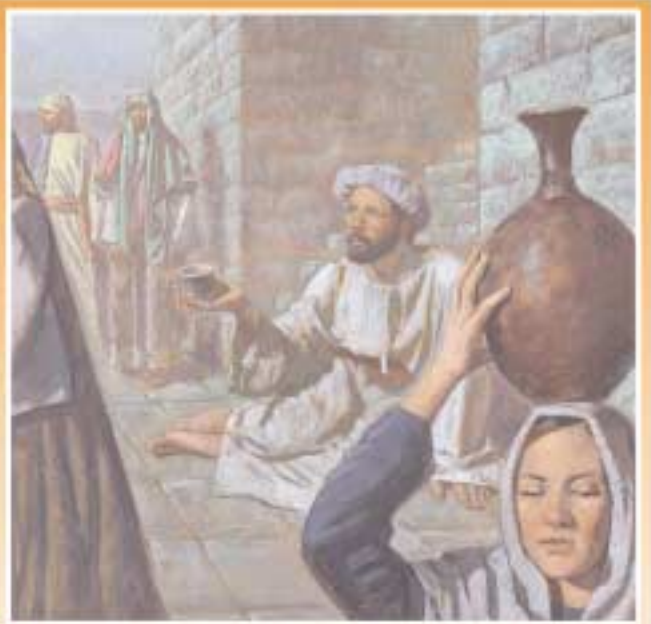
사도행전 2:41~47



신권과 성신의 힘으로 사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었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로 불리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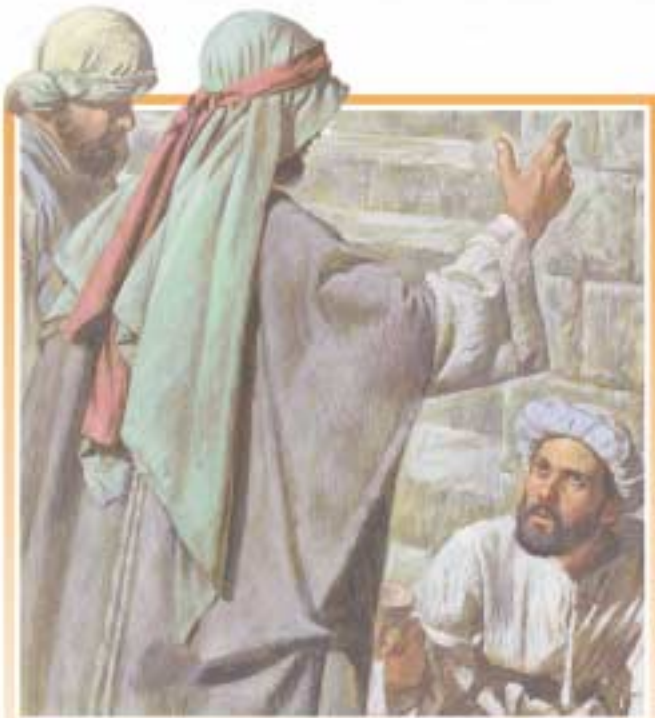
사도행전 2:2~4, 32~33, 36~43, 47; 3:1~7; 로마서1:7

베드로가 한 남자를 고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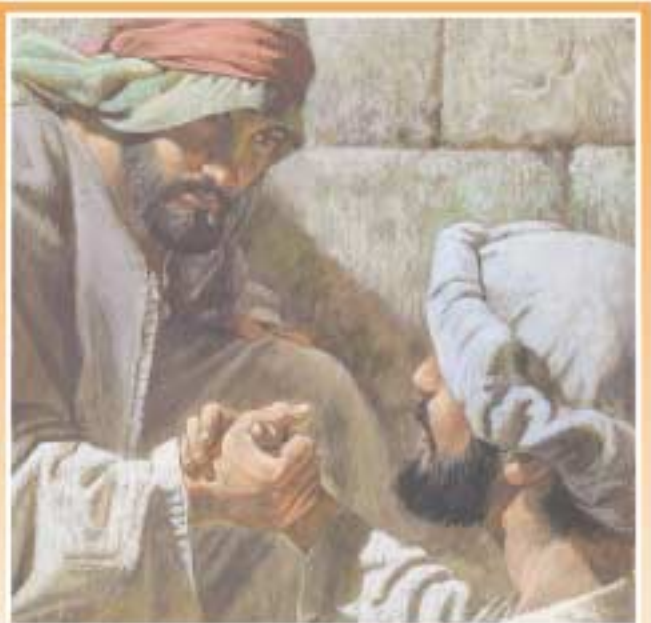
걷지 못 하는 한 사람이 매일 친구들의 도움으로 성전에 실려 왔습니다. 그는 성전 문가에 앉아 돈을 구걸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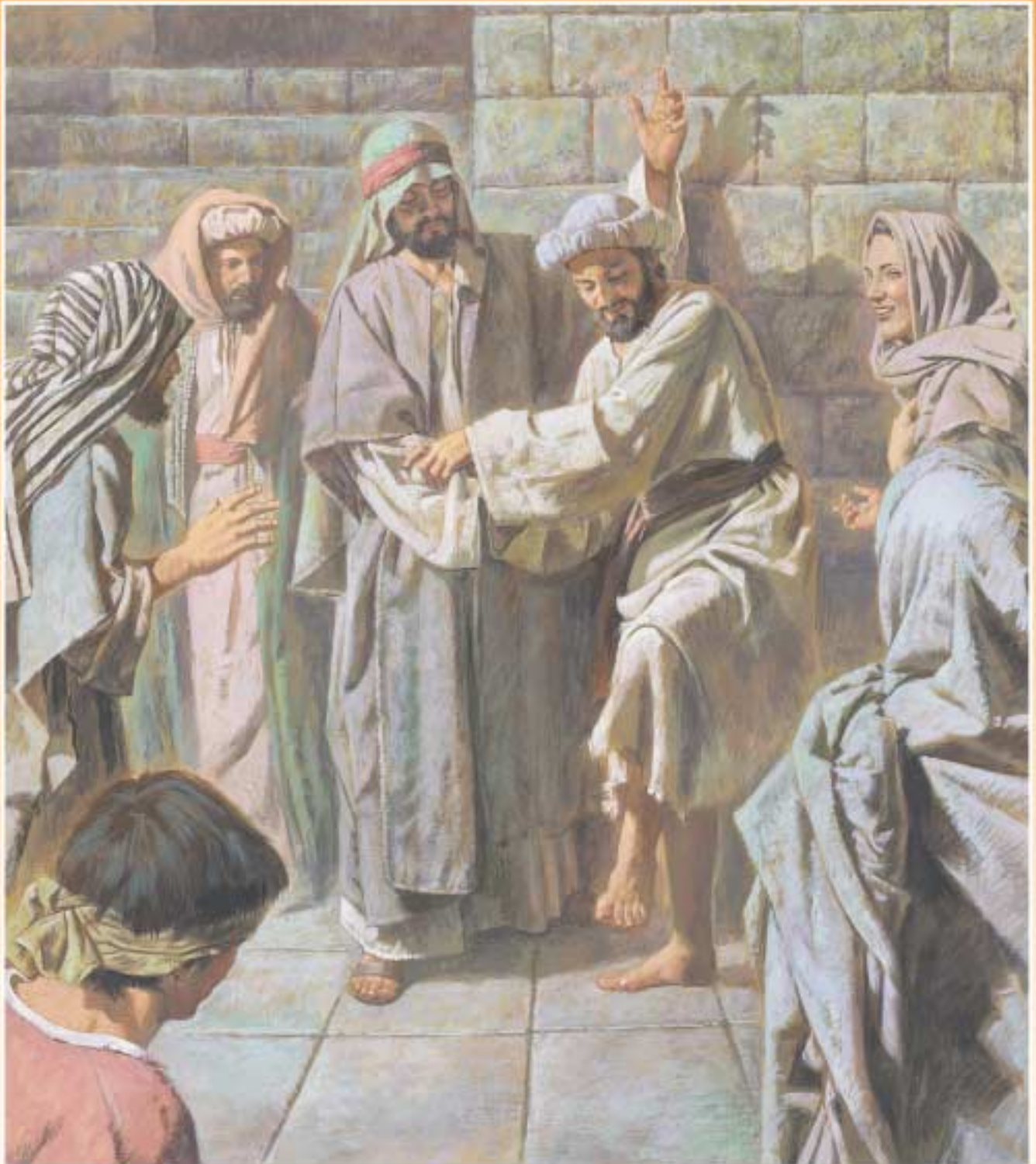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곁에 다가가자 그는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은 없지만 더 귀한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3~6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고쳐준 뒤,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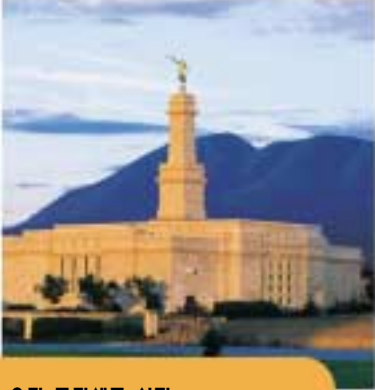


그 남자는 난생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자를 고칠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8~13, 16; 4:4

성전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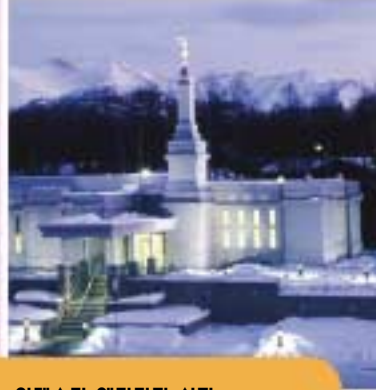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유타 몬티셀로 성전

1998년 7월 2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진진 락드



알래스카 앵커리지 성전

1999년 1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레이 히먼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치와와 성전

1999년 3월 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그레그 윌, 저커 누스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1999년 3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

1999년 4월 2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1999년 8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워싱턴 스포컨 성전

1999년 8월 2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오하이오 컬럼버스 성전

1999년 9월 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노스다코타 비즈마크 성전

1999년 9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벤의 선물

하워드 알 드릭스

1840년대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에 근거함

삽화: 줄리 올슨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33)

벤은 아버지의 마차 가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곳은 하루 종일 툽질 소리와 대패, 망치, 끌들이
만들어 내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매우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일하는 아저씨들 옆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날카로운
연장들은 건드리면 안 돼.” 아버지는 호기심에 찬 아들에게
종종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전 제 마차를 만들고 싶어요. 왜 안 되죠?”

이렇게 졸라대다 보면, 널빤지 몇 장과 연장 몇 개를
얻어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아 실컷 망치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쁘게도 아버지는 벤에게 생일 선물로
마차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크기만 조금 더
작을 뿐이지 큰 마차들과 아주 똑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
마차를 갖게 된다고요. 아기도 태워 줄 수
있고요, 가게에서 엄마가 필요하신 물건들을 사다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엄마도 정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어린 아들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벤의 일곱 번째 생일 아침, 잠에서 깬 벤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거실에는 갓 칠한 페인트 빛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새 마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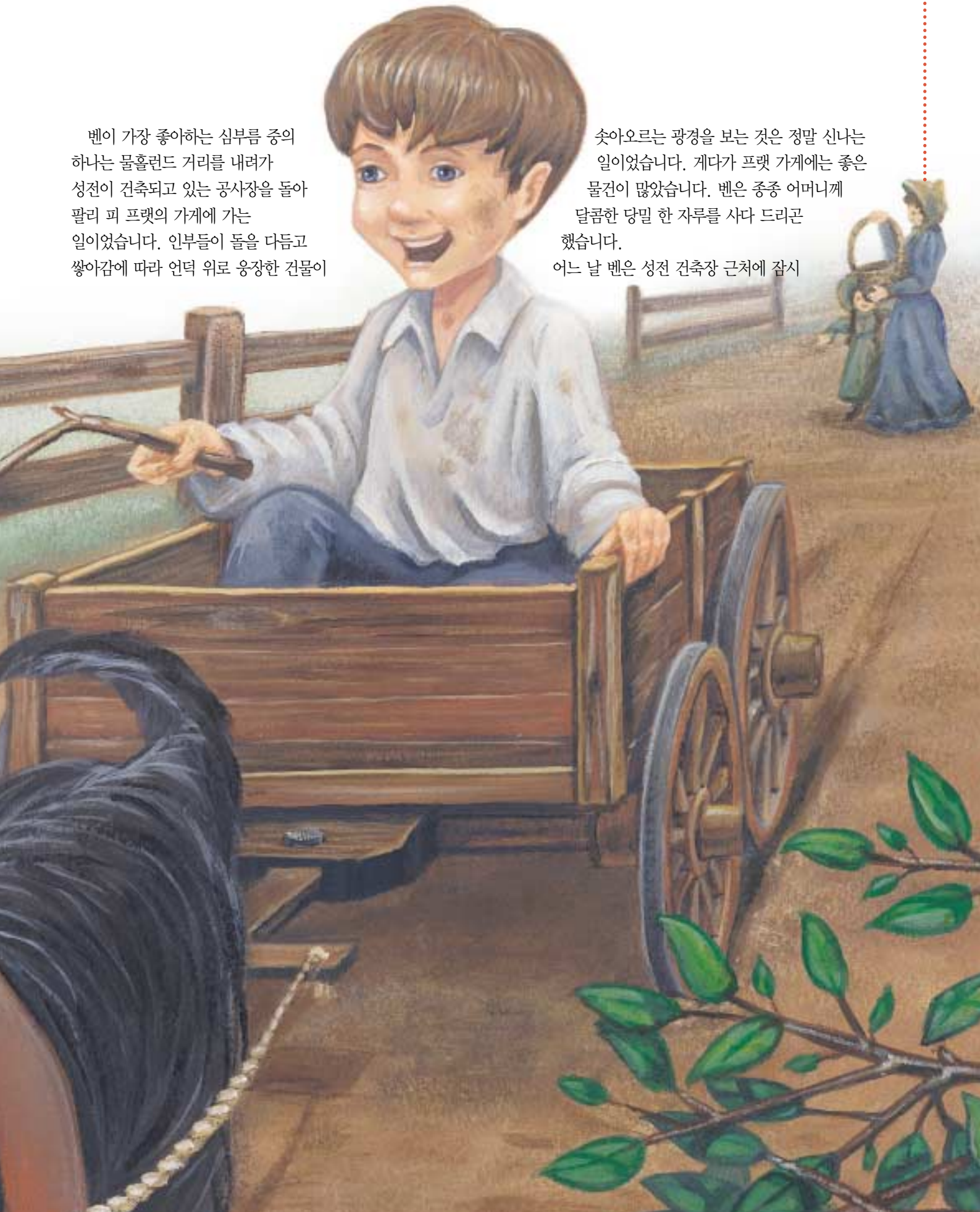
행복해 하며 엄마와 아빠를
사랑스럽게 꼬옥 껴안았을 때, 엄마와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벤은 밖으로 나가 마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며 친구들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벤은 남동생도 여러 번
태워 주었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 심부름도 했습니다. 나무
거리에서는 벤과 그의 애견인 본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도움으로 벤은 이 영리한 개에게 마구를
씩우고 훈련을 시켜서 어린 주인을 마차에 태우고 길과 집
주변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벤이 가장 좋아하는 심부름 중의 하나는 물홀런드 거리를 내려가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공사장을 돌아 팔리 피 프랫의 가게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돌을 다듬고 쌓아감에 따라 언덕 위로 웅장한 건물이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랫 가게에는 좋은 물건이 많았습니다. 벤은 종종 어머니께 달콤한 당밀 한 자루를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벤은 성전 건축장 근처에 잠시



멈추어 서서 인부들이 돌을 조각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땅, 땅, 땅. 정교하게 돌을 파고 드는 꼴을 쳐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벤은 두 명의 인부가 다가와 작은 마차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연장들을 실어 나르는 데는 이 튼튼한 마차가 제격이겠는 걸. 애야, 성전을 짓는 데 우리가 네 마차를 좀 쓰면 어떻겠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벤이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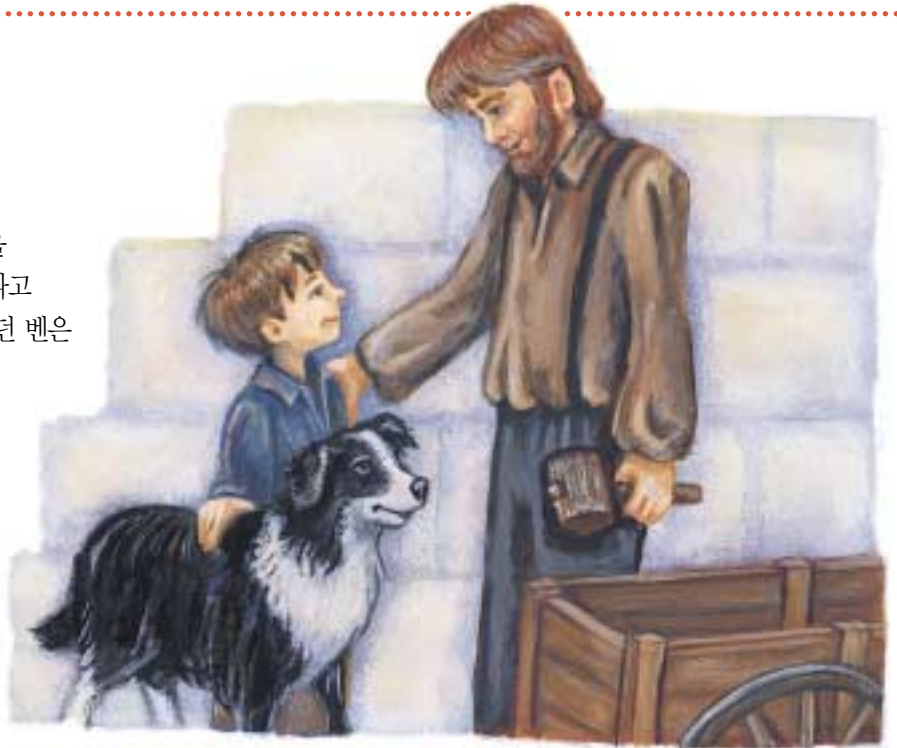
그 남자는 벤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차 가게 주인 맞지?”

“네, 맞아요.”

“네 아버지께 한번 얘기해 보아야겠구나.”

소중한 마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란 벤은 본을 데리고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마차를 가져가게 하지 않으실 거죠? 그렇지요?”

엄마가 놀라서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니, 벤?”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연장을 나르는 데 제 마차를 쓰게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날 밤 벤과 벤의 부모님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벤,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내놓고 있다. 네가 네 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단다. 아빠는 너에게 억지로 마차를 내놓게 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간구해 봐라. 우리는 주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란다.”

“엄마는 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곤 걸 알아.” 벤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엄마는 눈물로 얼룩진 벤의 얼굴에 뽀뽀를 해 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신 후, 벤이 혼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벤은 마차를 끌고 몰홀랜드 거리를 지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벤의 충직한 개도 뒤를 따라왔습니다. 책임자인 듯한 사람에게로 걸어가 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데 쓰시라고 마차를 가져왔어요.”

그 친절한 남자는 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게다. 이 마차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단다. 나부 성전을 짓는 데 너보다 더 큰 희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게다.

“아저씨는 벤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벤은 본을 데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

이 이야기는 마차 소년 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작가 하워드 알 드릭스는 이야기에 나오는 벤인 벤자민 우드베리 드릭스의 아들입니다.



“비이기심과 희생은 초기와 현대의 개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인데, 그것들은 서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딸인 에이치 옥스 장로, “개척자들을 따름”,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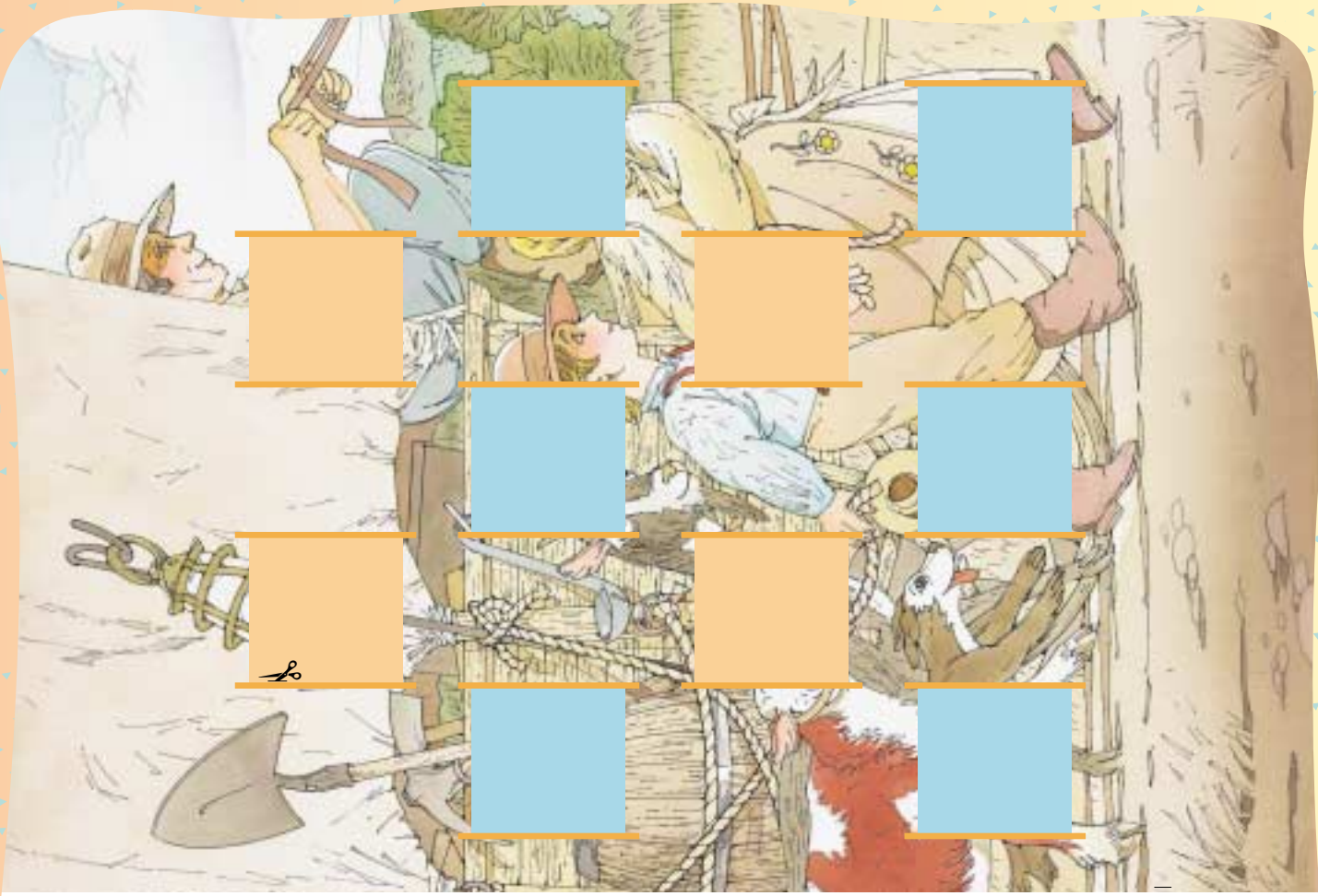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너희 아버지와 얘기해 봐야겠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들이 그냥 농담을 한 걸 거야. 이리 오렴, 저녁 식사가 늦었구나. 뭘 좀 먹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다.”

그러나 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낮에 본 그 인부 두

개척자 그림 엮어 보기

서부로 여행하는 동안 개척자 어린이들은 고난과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자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 그림들을 엮어 보기 위해, 이 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그림들과 개척자를 오려 내세요. 그림의 네모 칸에 있는 붉은 점선을 따라 칼집을 낸 후 그림들을 칼집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험거운 양쪽 끝부분을 그림에 고정시키고 싶으면 테이프를 붙여도 됩니다.



“나를 따르라”

비키 에프 마주모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라디아서 3:26)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느 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어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마태복음 4:18~22 참조)

구세주를 만났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세주를 따르도록 요청 받았습니니다.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며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과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현명한 충고에 귀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할 때,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는 구세주의 부름에 응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 신앙을 갖고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행복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나를 따르라”,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8쪽)

성구 미로

1. 15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점선을 따라 커다란 직사각형과 미로 조각들을 오려낸다.

2. 각 미로 조각에 쓰여 있는 성구를 찾아 읽고, 커다란 직사각형에 나와 있는 성구에 언급된 사람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미로 조각을 커다란 직사각형의 해당 부분에 붙인다.

3. 미로를 통과하여 구세주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로를 걸어 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마태복음 6장 7~13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본다. 또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설명한다. 각 반에게 다음 성구 중 하나를 나누어 주고 언제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마태복음 14:23; 마태복음 26:36; 마가복음 1:35; 마가복음 6:46; 누가복음 3:21; 누가복음 5:16; 누가복음 6:12; 누가복음 18:1.

그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한다. 그런 후, 각 반의 어린이 한 명에게 자신의 반이 갖고 있는 경전 구절을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 나머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그림을 보고 그 장소나 시간을 알아맞추고 그 성구를 찾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기도에 관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그 밖에도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엘마서 34:17~27 참조) 기도가 응답되었던 때에 관해 말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간증한다.

2. 성인 회원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읽거나 암송하고 그 성구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그들이 구세주를 따르는 데 그 성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경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세주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구세주를 따르는 것에 관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자기에게 의미있는 성구를 말해 보라고 한다. 성구를 고르는 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익숙한 구절들을 여러 개 칠판에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종이에 성구를 써 보라고 한다.(나이 어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신 써 줄 수도 있다.) 어린이들에게 그 성구를 집에 붙여 놓고 한 주 동안 외워 보라고 한다.

다음주 일요일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암송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목표를 준다. ●

침례 받는 엘마와 힐렐

두려움 없는 이천 명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니파이



기도하고 축복 받은 이노스

그물을 버려
두고 구세주를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

경전을 읽는
모사이야의 아들들

성전에 가는 야곱

성찬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하고 병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예언자 엘리사에게
순종한 나아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엘마서 53:22;
56:46~48, 54~56

출애굽기 31:12~17

이노소서 1:4~5

누가복음 17:11~19

사도행전 18:5

마태복음 4:18~20

니파이일서 3:7

야곱서 2:2

모사이야서 18: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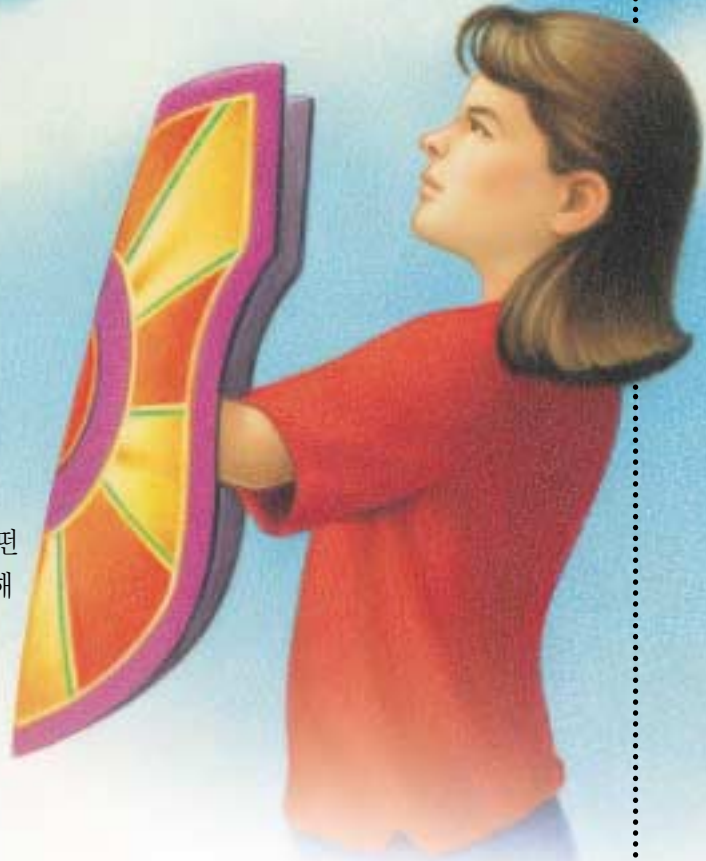
마태복음 26:26~28

엘마서 17:2

열왕기하 5:1~17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여러분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그림 그리는 것과
나무 조각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 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에베소서 4:11~13)

따라서 사도, 즉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임무는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러했듯이, 악마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띠를 동여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 ... 악한
자의 불화살을 날날이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교리와 성약 27:15, 17)

... 이 신앙의 방패는 공장이 아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

주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기대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결코 벗겨지지 않고 어떤
날카로운 화살에도 뚫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신앙의 방패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의 방패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경건, 용기,
사랑, 회개, 용서, 동정심 등이 그러한
재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조립하고 맞출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갑옷을 실제로 만들고
입는 일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1995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